

리모델링 공사비 급증 재건축보다 돈 더 든다

서울 곳곳 3.3㎡당 ‘600만원’ ↑
공기 짧아 리모델링 수요 늘어
“재건축 규제, 주거 선택권 침해”

아파트 리모델링의 평당(3.3㎡) 사업비가 재건축 사업비를 넘어서고 있다. 통상 리모델링 3.3㎡당 사업비는 재건축의 80~90% 수준이었다.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로 인해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성, 생활 환경 등 측면에서 재건축 대비 장점이 적지만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몰리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곳곳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공사비가 3.3㎡당 60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간 서울 대부분 리모델링 단지 공사비가 3.3㎡당 5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7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로 3475억 원을 책정했다. 3.3㎡당 평균 공사비는 669만 원이다. 고덕아남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물가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에 공사비를 높게 잡는 대신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드는 금액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성동구 ‘금호백산’ 아파트는 공사비를 7090억 원으로 책정했다. 3.3㎡당 평균 공사비는 619만8000만 원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 리모델링 공사비가 3.3㎡당 평균 6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업계에서

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를 낸다. 이는 주요 재건축 단지 공사비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비로 약 1885억 원을 책정했다. 3.3㎡당 평균 공사비는 627만 원. 재건축임에도 공사비가 600만 원을 넘어 당시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공사비는 513만8000원이었다.

리모델링은 내력벽을 그대로 활용해야 하기에 내부구조 설계에 한계가 있다. 특히 전용면적 증가로 동 간 거리가 좁혀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기존 설계를 그대로 가져가야 하다 보니 층고를 높이거나 층간소음 방음재 추가 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공사비가 급증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다.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빠른 사업 속도 때문이다.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10년가량 소요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2~3년으로 짧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나 초과이익환수제 등도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이유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만 집착해 재건축 규제 강화만 신경 쓰다 보니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매달리고 있다”며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생활환경까지 고려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1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 1837명, 경기 1131명으로 동시간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도 뚫렸다 ‘오미크론’ 5명 확인

나이지리아 등 해외입국자와 지인
코로나 확진 후 검사서 판정
오후 9시 서울 1837명 최다 경신
수도권 가용 병상 사실상 고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휴일효과 종료와 함께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위중·중환자가 700명을 넘어서는 데 더해 국내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서만 4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고, 경남권과 충청권에선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와 위·중증환자는 급증세다. 사망자는 3658명으로 34명,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723명으로 62명 각각 증가했다.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78.8%로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선 714병상 중 75병상(10.8%)만 남았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충청권도 가용 병상이 5개(5.0%)뿐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도 확인됐다. 확진자는 나이지리아 방문 후 입국한 40대 부부와 그 지인 등 3명과 기타 해외입국자 2명으로, 지난달 2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이날 오미크론 변이로 확

정됐다. 남아공 등 오미크론 발생·인접 8개국(외국인 입국 불허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유입된 경우다. 이번 사례로 국내에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오미크론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델타 변이보다 2배 많은 32개의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다. 전파력·치명률이 높고, 현재 사용되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백신을 통한 예방접종 확대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정부는 현 의료체계에 감당 가능한 일일 확진자 수를 7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커진다면 방역체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만든다

거주 부적합 주택·공장 혼재지역
주민 이전·정비, 정부 지원 명시

주택·공장 혼재 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 사월마을, 익산 장점마을, 김포 거물대리처럼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이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일 21대 국회 난개발방지포럼(대표의원 박상혁)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을 발의한다.

인천 사월마을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유해물질·폐기물에 직접 노출됐으며, 이들 중 49명이 순환기·내분비질환을 앓았다.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 환자가 됐다. 김포 거물대리에서도 토양·지하수 등에 대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행위자들이 합법적

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 이전 △주거 환경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핵심이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비에 따라 주택이나 공장이 이전할 경우는 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 대책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난개발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사상 첫 ‘600조 슈퍼 예산’ 확장재정 유지

여야, 607조 합의… 오늘 처리
소상공인 지원예산 4.7조 증액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진통 끝에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제출한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어난 총 607조 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순증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증액 소요에 합의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

들어질 것”이라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산안 순증 가능성을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제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충,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

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약 5조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여야는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사업 예산의 증액 소요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요구한 올해 수준(21조 원) 이상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하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되면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화재 잡는 무기단열재 先대응” KCC 글라스울 증설

유기단열재 패널 잇단 화재에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예고
김천·문막 공장 1420억 투자
30~50% 추가 생산능력 확보

KCC가 ‘글라스울’ 공장의 생산능력을 대폭 늘린다. 앞으로 급증할 무기단열재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다. 글라스울이란 여섯 종류의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용융한 뒤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한 무기단열재다. 단열 효과가 높아 건물 보온·보랭재에 주로 쓰인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KCC는 경북 김천과 강원도 문막에 있는 글라스울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 규모는 총 142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김천 공장에는 980억 원을 투자해 1호기에 더해 2호기를 새로 증설한다. 문막 공장에는 440억 원을 투자해 1호기의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각각 투자 기한은 2023년 10월과 2023년 3월이다. 문막 공장의 경우 일부 투자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설로 KCC가 기존 생산량의 약 30~50%의 글라스울 추가 생산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추측한다. 회

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설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CC에 따르면 3분기 기준 KCC 문막·김천 공장의 보온단열재 생산능력은 10만4025톤(t) 규모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유기단열재를 적용한 샌드위치 패널에서 화재가 연이어나면서 무기단열재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요가 늘 것을 대비해 증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각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의 화재 안

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 중에서도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전자재 전반으로 난연·불연 성능 강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에는 스티로폼(EPS)이나 우레탄 등 유기단열재가 많이 쓰였는데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유기단열재들이 시장에서 대거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

장은 약 1조8000억 원 규모다. 단열재로는 저렴한 스티로폼이 가장 많이 쓰인다. 점유율은 60% 수준이다. 폴리우레탄 점유율도 23%에 달해 유기단열재가 지금까지 비중은 80% 수준이다. 글라스울의 점유율은 17% 정도다. 이 시장에서는 KCC가 약 50% 점유율로 1위다. 업계 관계자는 “글라스울은 유럽에서는 전체 단열재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인 자재”라며 “앞으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이다솜 기자 citizen@

GS 4세경영 가속화...오너家 허서홍, 부사장 승진

신사업·ESG 추진에 방점

GS가 ‘2022년도 임원인사’에서 오너 4세인 허서홍 (주)GS 미래사업팀장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GS는 △대표이사 선임 3명 및 전환배치 1명 △사장 승진 1명 △부사장 승진 6명 △전무 승진 8명, 전환배치 1명 △상무 신규 선임 20명 △외부 영입 3명 등 총 43명 등에 대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계열사별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정기 임원인사의 특징은 △신사업 전문 인력의 대거 승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 인력의 고위 임원 기용 △외부 인재 영입 등 세 가지이다. 우선 전체 임원 승진과 신규 선임자 43명 중 9명이 GS의 신사업 전략과 투자 업무를 담당한다. 오너 4세이자 (주)GS 미래사업팀장인 허서홍 부사장은 GS그룹 전반의 신사업 투자 전략을 수립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시너지와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외부 영입한 (주)GS의 허준녕 부사장은 GS의 미래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맡는다. GS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법인을 이끈다. 또한 GS는 이번 인사에서 친환경 ESG 경영 추진 계열사 인력을 중용했다. GS E&R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석환 사장은 GS E&R의 암모니아 혼소발전,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사업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GS칼텍스 이두희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경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 신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전문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도 적극 영입했다. 허준녕 부사장 외에도 GS리테일에서는 마케팅전문가로 알려진 여인창 전무를 파르나호텔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관계자는 “GS는 친환경 신사업을 포함해 미래 전략 사업 등 사업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이라며 “역동적인 혁신이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를 경영의 필수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국민銀 차기 행장 이재근 부행장



이사부행장 발탁 2년 만에
젊고 역동적 조직 변신 의지

KB국민은행이 차기 은행장으로 이재근(사진)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을 추천하며 ‘세대 교체’에 나섰다. 이 부행장이 이사부행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행장 후보로 천거되면서 빠른 금융 산업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젊은 조직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 부행장을 추천했다. 지난 4년 동안 KB국민은행을 이끌어 온 허인 행장이 이달 임기 만료 이후 지주 부회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어서 지난 10월 27일부터는 사전 검증된 후보자군을 대상으로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이 후보는 은행 영업그룹대표(이사부행장), 은행 경영기획그룹대표(전무) 및 지주 CFO(상무) 등 그룹 내 주요 핵심직무

(영업, 재무·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고객과 시장, 영업현장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그룹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경영관리위원회 멤버로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 전반의 탁월한 경영 감각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대추위는 “은행의 플랫폼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우위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후보자가 KB국민은행의 ‘No.1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도약 및 글로벌 사업(Biz) 부문의 양적·질적 성장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의 심사·추천을 거쳐 이 후보를 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년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세움EAP는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및 가족 문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사 교육양성
프로그램

“게임하면서 코인 번다”… ‘미르4’ 대박 이유 있었네

⑤ 위믹스

지금 기록한 것이 아무도 모르게 내일 사라질 수 있고, 오늘 작성 목록에 없던 것이 내일 새겨질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단기간 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코인 시장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거래소 상장으로 돈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가상자산은 현재 ‘화폐’라는 이름이 박탈됐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화폐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코인 리포트’ 시리즈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코인 중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현물과 연동이 되는 코인만 조명하고자 합니다. 기획에 등장하는 회사는 본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본지에 이들 회사가 사전 협조를 요청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 속 광물이 실제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현실에 구현한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이야기다. 위메이드는 자사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4’에 게임 내 아이템을 채굴하면 코인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게임 내 아이템 ‘흑철’ 10만 개를 모으면 드레이코 코인 1개로, 드레이코 코인 1개를 다시 위믹스로 바꾸는 방식이다. 1일 오후 2시 빗썸 기준 위메이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의 가격은 1만9850원이다.

미르4의 경우 위믹스 인기에 힘입어 글로벌 동시접속자 13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쟁자가 많아지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규 유저의 진입장벽을 호소하기도 했다. 흑철이 나는 비전 지역으로 넘어가고, 비국 점령전을 통해 센 문파(길드)에 들어가야 채석장 내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입이 좋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빨간색, 파란색 흑철을 채집하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위 ‘고인물’에 털리기 일쑤다. 신입들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기존 유저만큼 캐릭터에 투자하거나, 쟁을 통해 채석장을 쟁

“게임 속 아이템, 코인으로 교환”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열풍 위메이드 ‘위믹스’로 시장 선도 ‘위믹스 코인’ 하루 거래액 1743억

취할 수 있는 문파에 소속돼야 한다.

연기는 어렵지만 많은 이들이 위믹스 코인 획득에 애를 쏟는 이유가 있다. 위믹스가 향후 위메이드가 구축할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축 통화로 자리 잡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플랫폼에 내년 안에 100개의 게임을 태우고, 각 게임 내 보상으로 지급할 코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개별 코인의 교환을 매개할 위믹스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가 시장에서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플랫폼이지만 각 게임 개발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나친 사행성 이슈 등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 가급적 필터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미르4 글로벌 진출을 계기로 외부 게



P2E(Play to Earn)
수익창출을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게임 아이템으로 NFT, 코인을 얻고 현금화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임사들의 관심이 모여면서, 플랫폼을 어떤 콘텐츠로 채워나갈지 내부의 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대신 P2E(Play to Earn)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게임 개발사들에 간략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P2E는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다. 유저들이 더 이상 게임을 소모적인 활동이라 간주하지 않고, 플레이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위믹스로 대표되는 자산을 NFT를 구매에 활용할 수도, 메타버스 내 다양한 활동에 접합할 수도 있다. 기존처럼 주어진 퀘스트를 소비하기보다, 게임 내 플레이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위메이드가 그리고 있는 미래다.

게임과 경제적 요소, 가상자산에 대한 관

심 덕에 위믹스(WEMIX)의 거래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일 오후 2시 기준 위믹스의 글로벌 24시 거래량은 1743억6148만 원어치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위믹스가 1627억3000만 원이 거래됐다.

현재 위메이드는 약 4개 기업과 위믹스 네트워크를 함께 꾸려나가는 중이다. 네이버 클라우드, 클레이튼을 비롯해 중국 대형 게임기업 룽투게임, 위메이드트리 등이다. 위믹스 파트너사들은 게임 콘텐츠뿐 아니라 플랫폼 내 P2E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인터뷰 최 용 호 위메이드트리 이사

“내년 위믹스 게임 100개 목표 NFT·디파이 등 생태계 확장”

레버리지 이자농사 서비스 ‘클레바’ 시스템 연내 출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과 함께 NFT, 디파이 서비스 등 위믹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중이다.”

최용호(사진) 위메이드트리 사업전략본부 이사는 최근 이투데이와 만나 위믹스의 사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이사는 올해 4월 위메이드 트리에 합류했다. 2003년부터 약 10년간 NHN 한게임에서 쌓아온 경험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에서 다져온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보탬이 됐다. 현재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신사업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 내년 말까지 100개 게임을 올리는 게 목표다. 최 이사는 “위믹스 플랫폼이 시장 주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게임 개발사가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려면 토큰 이코노미 설계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까지 새롭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할 경우 게임 잘 만든

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앱스토어·구글플레이처럼 게임 개발사들이 쉽게 블록체인을 붙여 게임을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쪽으로 가닥을 잡는 중이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믹스 생태계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 또한 고민 중이다. NFT와 함께 디파이를 이룰 위한 핵심 사업 영역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 이사는 “위믹스 토큰 보유자(홀더) 입장에서 위믹스 토큰을 통해 추가적인 여러 가치들을 만들어낼 부분이 필요하다”며 “월렛 안에 위믹스 토큰을 예치해 놓으면 보상으로 위믹스 토큰이 추가 지급되는 스테이킹 모델을 연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내비쳤다. 연내 배일이 벗겨질 ‘클레바(KLEVA)’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이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레버리지 이자 농사’를 표방하는 서비스로, 대여자는 유동성 제공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받고, 참여자는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스테이킹 모델과 클레바 이후로도 다양한 형태의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 머니레고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믹스 생태계를 한층 더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최 이사의 계획이다.

박소는 기자
gogumee@



준비 안된 재택치료... 동거인 중심 지역사회 감염 ‘비상’

‘전면 재택치료’ 과제 산더미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가 도입됐지만, 과제가 산더미다. 여전히 위중·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재택치료자 동거인에 대한 관리·지원방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택치료 도입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특별방역강화대책’에 따라 재택치료가 시행된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감염병 환자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도입돼 현재까지 4만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다. 현재 재택치료 인원은 1만174명이다. 재택치료 중 병원이송 비율은 5.8% 수준으로 관리 중이다. 애초 재택치료는 일반 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체계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중증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고갈되면서 결과적으로 ‘등 떠밀려’ 주된 의료대응체계가 됐다. 급증한 위중·중증환자와 준중증환자를 입원 치료하려면 감염병 전담병상까지 비워야 한다.

재택치료를 통해 병상을 확보해도 장비·인력 문제가 남는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ECMO(ECMO, 체외막산소공급) 장비와 인공호흡기가 부족하고, 이를 다룰 인력도 충분치 않다. 재택치료자 관리도 숙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한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이송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할 계획이지만,

동거인 스마트폰 동선 관리 한계 중증환자 치료 장비·인력 태부족

신규 확진 5000명대 고착화 땀 동시다발적 긴급상황 대응 불가

지금처럼 5000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고착화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진다. 재택치료가 자리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확진자와 위중·중증환자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의료계에서는 재택치료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못 찍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청진 등 진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처방이나 치료상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재택치료 도입은 오히려 동거인을 중심으로 확진자를 늘릴 우려가 크다. 재택치료자로부터 감염된 동거인이 확진 전 주거지를 이탈하면 자칫 지역사회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을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스마트폰을 두고 거주지를 이탈하는 경우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의 거주지 이탈은 재택치료 확대와 무관하게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의료대응체계를 이미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국민성에 기댄 호소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보다 안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확진자 5000명대 초반, 위중증 환자 700명대로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김부겸(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방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위드 코로나’에 소아·청소년 확진 1.4배 급증

교육당국, 백신접종 권고 ‘선회’ 의료계 “전문가 논의도 없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12~17세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 당국과 방역 당국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자율에서 사실상 권고로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10월 4837명(전체 확진자의 9.1%)이었던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는 11월 6613명(8.0%)으로 1.4배 늘었다. 확진된 소아·청소년 중

18%가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이 중 9명은 위중·중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만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학교별로 접종 희망자 대상 수율을 조사한 뒤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세부 계획은 사·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이번 주까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이 대국민 호소문 형태로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주문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장기 소아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된 바 없고, 부작용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관계 당국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방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논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에서도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5~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안을 승인했는데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하지도 않고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 선택에서 적극 권고로 ‘선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현경 기자 son89@

“說說 蹣는 오미크론,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

증시 전문가 긴급진단

“스태그플레이션 등 삼중고 재편
이달 3000선 회복 가능성 적어
美연준 테이퍼링 속도 변수로”
코스피 2.14% ↑ 2899.72 마감

“바이킹에 오른 것처럼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증시가, ‘오미크론’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출렁거리네요.” 지난달 30일 70포인트 넘게 하락해 283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1일에는 60.71포인트(2.14%) 오르며 2899.72까지 상승하자 여의도 증권가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다. 올해 초 3200선까지 뚫으며 상승장구하던 증시가 연말 ‘오미크론’ 공포에 휩싸이면서 하루에만 수십 포인트 넘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날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1일 이투데이에는 ‘오미크론’ 파장과 미국의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등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시장의 미래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할지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케이프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전문가들의 긴급 진단을 들어봤다. 이들은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투자 자산을 다 양화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오미크론의 확산이 국내 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



융·실물시장에 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 경로나 속도도 지켜 봐야 할 변수로 꼽았다.

김용구삼성증권 연구원은 1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750~3000포인트로 제시하면서, “오미크론 변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12월 시장의 부침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논쟁과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라는 이중고에 집중했던 시장 초점은 오미크론 변이와 함께 삼중고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현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급망 차질 현상이 12월 안에 해소될 가능성이 작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코스피가 12월에 3000선을 회복할 가능성은 작다”며 12월코스피 예상 밴드를 2800~3050포인트로 제시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2800포인트는 후행 주가순자산배율(PBR) 1.1배에 근접한 수준이고, 연금의 매수 전환을 위한 기준선으로 중요하다”며 “국내 증시가

공급망 차질 및 금리 상승으로 선제적으로 조정을 겪은 것도 고려하면 현 주가 수준에서 주가 비중 축소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3000선 아래 구간에서는 주가 비중 확대와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용구 연구원은 “연말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기초체력) 측면의 투자 전략 판단 축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시나리오에 따른 종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상 유지, 혹은 악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코로나19와 주가가 관계없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을 선호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와 주가가 관계가 적은 종목, 혹은 코로나19가 퍼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성장주로 분류되는 △배터리 △코넨츠 △바이오 등”이라며 “변이바이러스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기업 실적 전망을 하향시킨다면 오히려 성장주의 희소가치가 빛날 수 있다는 논리에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적 바닥 시그널과 외국인 수급 둔화 등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성장 스토리에 과도한 수급이 모이는 개별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잠 못 이루는 ELS·DLS 투자자들

기초자산 지수·국제유가 급락
조기상환 실패에 손실 가능성

최근 오미크론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바닥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국제유가마저 급락하면서 국내 및 글로벌 지수와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파생상품들이 무더기 손실 위험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기초자산 지수나 유가가 추가 하락한다면 조기상환에 실패하는 상품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 파생상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눅인(knock in·손실)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타결제원에 따르면 11월 ELS의 기초자산 중 발행 비율이 가장 높은 S&P500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미상환 ELS의 규모는 약 2조50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홍콩 H지수가 강하게 반등하지 않는다면 4분기에도 관련 ELS들이 대부분 조기상환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OSPI200 지수 역시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할 경우 조기상환 실패 물량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초자산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88.27포인트(1.90%) 내린 4567.00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날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50도 1.1% 내린 4063.05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마저 추락하면서 DLS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DLS는 주가지수, 원자재, 금리 등 다양한 자산가격과 연동돼 있는데, 통상 6개월 단위로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가격의 70~80% 이상이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레벨인 최초가격의 40~50%까지 내려가면 최초가격 대비 만기 가격만큼의 수익을 지급한다.

최초가격보다 적어도 절반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내는 안전한 상품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자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손실 위험이 커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77달러(5.39%) 급락한 배럴당 66.1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 발언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속화 발언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은 2일에 열리는 석유수출기구(OPEC) 플러스(+)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미크론 이슈가 부각돼도 OPEC+ 국가들의 감산 축소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이난희 기자 nanch0907@

<오미크론>

6대륙 뚫은 ‘O’… 국내 제약·바이오, 치료제 개발 올인

아프리카·유럽 이어 일본까지 전파
셀트리온, 흡입형 치료제 개발 속도
위탁업체 반사익 기대…독자백신도

아프리카·유럽·일본 등에 이어 국내 방
역망도 뚫렸다. 1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의
심자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3명
과 다른 해외 입국자까지 총 5명이 오미크
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글로벌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제약·바
이오업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오미크론에 대한 기존 백신과 치료제 효
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감염과 별개로 중증화 위험은 낮출
것이라는 전망은 희망적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화이자와 공동
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
엔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
는 로이터통신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오미
크론으로 인한 증상에 백신 효능이 일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셀트리
온은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개발에
이어 향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적극 대
응하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인 ‘각테일’ 흡
입형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동
시에 각테일 후보항체 풀에서 변이 바이러
스 대응력이 가장 우수한 후보항체 ‘CT-P
63’을 선별해 별도의 글로벌 임상 1상도 연
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
근 ‘CT-P63’ 구조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항원 결합 부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
스의 변이 부위와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강한 억제력
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과 확
인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항

제약바이오 업체 ‘오미크론’ 대응 현황 ※ 출처: 각 사

셀트리온	각테일 흡입형 치료제 개발 속도
현대바이오	치료제 ‘CP-COV03’ 오미크론 해결 연구 성과 7일 공개
바이오리더스	감마PGA 물질 기반 치료제 개발 중
에스디바이오센서	진단키트 오미크론 확진자 유효성 확인
씨젠	진단시약 ‘올플렉스’ 오미크론 검출 가능 발표
진원생명과학	DNA 백신 ‘GLS-5310’ 오미크론 효과 예상

코로나19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 발견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나이저리아 방문 40대 부부(인천 거주)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
11월 14~23일	나이저리아 방문
24일	귀국 후 공항서 자택까지 이동 지원 1인과 접촉 동거 가족 접촉
25일	40대 부부 코로나19 확진 판정
현재	오미크론 변이 의심자 4명 최종 확정 검사 진행 중



1일 인천공항에서 관광객사 관계자들이 백신접종 자가격리면제자들을 검사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최근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등으로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

체의 슈도 바이러스 중화능(억제) 테스트
를 진행하는 한편,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후속 임상은 ‘CT-P63’을 결합한 각테일
흡입형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규제기관과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로 했다.

현대바이오는 현재 임상 1상 중인 코로
나19 치료용 경구제 ‘CP-COV03’가 오미
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까지 해결하는 항바
이러스제 여부를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를
7일 공개한다. 압타바이오는 현재 미국 식
품의약국(FDA)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경
구용 치료제 ‘아이스지낙시브’의 오미크론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리더스는 ‘감마PGA(γ -PGA)
)’ 물질 기반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
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자체 개발 중인 치
료제가 NK세포 활성 효과로 인해 ‘오미크
론’과 ‘델타’ 변이에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단키트 업체들은 ‘오미크론’ 확진자
진단 여부와 이에 따른 제품 개발 논의로
분주하다. 국내 유통 중인 대부분의 진단
키트는 ‘오미크론’을 포함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등의 감염자를 진단할 수
있지만, 해당 확진자가 어떤 종류의 바이

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유전자
전체를 검사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
해야 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판정을 위해
변이 유전자증폭(PCR) 방식을 개발하
기로 했다. 씨젠은 자체 개발한 진단시약 ‘올
플렉스(Allplex)’를 통해 ‘오미크론’ 바
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더나, 노바백스, 화이자, 아스트라제
네카 등 글로벌 업체들이 ‘오미크론’ 백신
에 주목하면서 위탁 생산을 맡은 국내 업
체도 반사익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모더나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의 생산
을 맡고 있다. GC녹십자는 안센과 협의
중이다. 휴온스글로벌컨소시엄과 한국코
러스컨소시엄은 스푸트니크V와, 엔지켐
생명과학은 자이코브-디와 생산 계약을
마쳤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스푸트
니크 라이트’의 CMO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 백신을 직접 개발 중인 국내 업
체들도 분주하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정부
지원 과제에 진행한 유니버설 범용 백신의
비임상을 내년 2월 중 종료한다. 유니버설
범용 백신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모기업

바이오노트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진원생명과학은 현재 DNA 백신 ‘GLS
-5310’의 국내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이 오미크론 백신 개
발을 언급하기는 시기상조란 지적도 나온
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오리진일 백신
을 완성한 업체도 없는 현실에서 ‘오미크
론’ 대응하기는 이르다”면서 “오리진일 백
신을 만든 후야야 항원을 바꿔 새로운 변이
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먼저 기본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jooh@·고대영 기자 kodae0@

먹는 치료제 ‘변이 구원투수’ 될까

FDA ‘몰누피라비르’ 사용 승인
‘화이자 효과 89%’ 안전성 변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처음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탄생이 임박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국내
외가 다시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먹는 약
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한국시간) FDA의 자문기구인 항
균제자문위원회(ADAC)는 머크(MSD)
의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
비르’의 승인을 FDA에 권고했다. 코로
나19 경증 또는 중증인 성인 고위험군 환
자에 대해 이 약이 위험보다 효용이 앞선다
고 판단한 것이다.

몰누피라비르는 지난달 4일 영국에서
가장 먼저 승인됐다. 유럽의약품청(EMA)
)은 현재 승인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
이다. FDA 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각
국은 먹는 약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치
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역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
드’로 FDA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EMA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약의 자료 검
토에 들어갔다.

애초 머크는 임상 3상에서 몰누피라비
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FDA에 제출한 사전검토 자료에 담긴 임
상 결과의 마지막 분석에서 50%였던 효과
는 30%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
능성이 큰 코로나 확진자를 상대로 한 임상
시험 결과 증상 발현 시를 내 투여하면 입원·사

망 확률이 89%, 증상이 나타난 지 7일 안에
투여하면 8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몰누피라비르의 3배에 이르는 효과다.

화이자도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앨버트 블
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9일 “팍스로비드는 대부분의 변이가 스
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올 것이란 사실을 염
두에 두고 설계됐다”면서 “오미크론의 영
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증식하
는데 필요한 효소인 프로테아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인간면역결핍(HIV)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리토나비
르’와 함께 투여한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확인되
지 않았다. 화이자도 팍스로비드 복용 환
자나 위약을 먹은 환자 모두 약 20%의 이
상 현상이 있었지만, 대부분 가벼운 것이
었다고 밝혔다. 심각한 부작용은 팍스로비
드 복용군의 1.7%, 위약 복용군의 6.6%에
서 보고됐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도입은 연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
전처는 지난달 17일 몰누피라비르의 허가
를 위한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팍스로비
드는 사전 검토 단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 신속하게 식약처와 협의해서 긴급
사용승인에 속도를 내고, 허가가 나면 12
월 이내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도입 시기를 앞당
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1-05216호(2021.11.17~2022.11.16)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7-207호(2021.11.15~2022.11.14)

KYOBŌ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전 직영점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캠퍼스, 영웅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등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카啡트,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매장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리타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I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채권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총독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출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압권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금융상품은 투자상품 가격 하락,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CMA 입금액은 RP 등에 투자됩니다.

※ 온라인 주식 거래매매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0대 기업 743곳 수도권에... 청년도 기업도 서울로

〈글 쓰는 순서〉

- ⑤ '청년이 없다' 늘어나는 지방
- ⑥ 사라지는 청년 일자리
- ⑥ 전문가 제시하는 대안은

청년들이 떠난 지역은 기업들도 떠난다. 이는 남아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71곳 중 62곳의 본사는 수도권(서울 52개, 경기 8개, 인천 2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론 전국 1000대 기업 중 74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며, 총매출액의 86.9%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잔류에 따른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 기존에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더해 지방 기업들이 청년들을 쫓아 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옮긴 탓이다. 서울에 이어 제2도시인 부산은 2008년만 해도 1000대 기업에 55개 기업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29개 기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최근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선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사업장을 구미에서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다. 이런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은 비수도권 산단의 공동된 약점이다.

주요 사업체가 수도권에 쏠리면서 비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임금도 비수도권보다 29만원 ↑ 서울로 대학 온 지역인재들 정착 수도권 쏠림현상 갈수록 심해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지역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고 대응 방향'에서 30년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295만 원으로 비수도권 266만 원보다 29만 원 많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명목임금 상대 격차도 2013년 12.1%에서 2015년에 8.5%까지 축소됐으나, 최근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방소멸의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과 감소"라며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의 부족과 이에 따른 청년 유출이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확대는 앞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일자리의 '양적 부족'만큼 심각한 문제가 '질적 정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지방 노동시장의 질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별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전남이 21.9%, 경북 19.7%, 전북 18.6%에 달했다.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모든 도 지역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의 구직 수요가 많은 음식점·주점업과 자동차 제외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의 경우 음식점·주점업 취업자 비중은 5.5%(서울은 7.7%)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보험업 취업자 비중은 강원(2.8%)과 전북(2.6%), 경북(2.4%), 제주(2.5%)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에서 서울(4.8%)의 절반을 밑돌았다. 충남과 전남은 금융·보험업 비중이 각각 1.6%, 1.9%에 머물렀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서울이 8.3%였는데, 경북은 1.4%, 강원은 1.7%에 불과했다. 시 지역에선 부산(2.8%)이 특히 낮았다.

최근에는 '기흥라인', '판교라인'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를 중심으로 황으로 그른 기흥라인은 사무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중심으로 황으로 그른 판교라인은 기술직 일자리의 남방한계선을 각각의

미한다. 과거에는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양재라인)이 사무직의 남방한계선,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기흥구가 기술직의 남방한계선으로 불렸으나, 기업들이 서울 외곽으로 본사를 옮기고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사무직·생산직의 남방한계선이 아래로 조금 밀려 내려왔다.

지역의 인재들이 대학 입시를 계기로 서울에 정착하면 기업들의 탈지방화,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출신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지방에 남을 이유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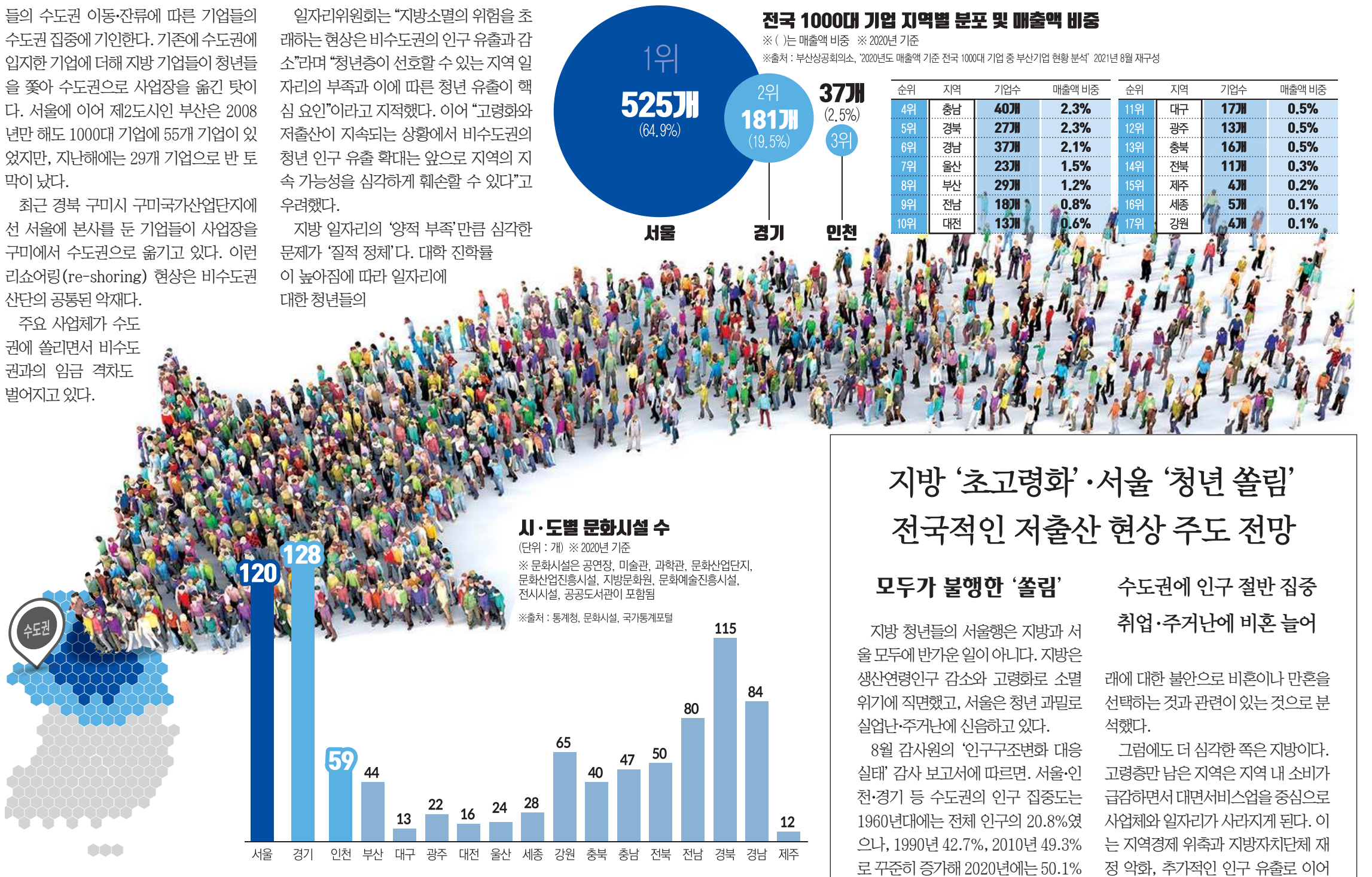
세종=김지영 기자 iye@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전국 1000대 기업 지역별 분포 및 매출액 비중

※ ()는 매출액 비중 ※ 2020년 기준

※출처 : 부산상공회의소, 2020년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분석 2021년 8월 재구성

순위	지역	기업수	매출액 비중	순위	지역	기업수	매출액 비중
4위	충남	40개	2.3%	11위	대구	17개	0.5%
5위	경북	27개	2.3%	12위	광주	13개	0.5%
6위	경남	37개	2.1%	13위	충북	16개	0.5%
7위	울산	23개	1.5%	14위	전북	11개	0.3%
8위	부산	29개	1.2%	15위	제주	4개	0.2%
9위	전남	18개	0.8%	16위	세종	5개	0.1%
10위	대전	13개	0.6%	17위	강원	4개	0.1%



지방 '초고령화'·서울 '청년 쏠림'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 주도 전망

모두가 불행한 '쏠림'

지방 청년들의 서울행은 지방과 서울 모두에 반가운 일이 아니다. 지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고, 서울은 청년 과밀로 실업난·주거난에 신음하고 있다.

8월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20.8%였으나, 1990년 42.7%, 2010년 49.3%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50.1%로 지방 인구를 앞질렀다. 이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28%)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된 배경은 청년층의 이동이다. 이는 지방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가임여성 유출에 따른 출산력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69%인 157개 시·군·구의 경우 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 층 인구 기반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쏠림은 수도권 입장에서조차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취업난·주거난이 심화되면서 비혼·만혼이 추세화되고, 그 결과로 출생아도 준다. 감사원은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이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청년층의 과도한 경쟁과 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집중 취업·주거난에 비혼 늘어

래에 대한 불안으로 비혼이나 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더 심각한 쪽은 지방이다. 고령층만 남은 지역은 지역 내 소비가 급감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업체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추가적인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 특히 보건·의료 등 필수시설까지 사라지면 그 지역은 지역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미 경북 군위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로 입원실·응급실 등이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최근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청년들의 '탈(脫)서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서울 시민은 341만43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30대의 비중이 46%로 절반에 육박했다.

주된 이탈 사유는 집값 상승이다. 서울연구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통계청의 가구방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3.0%)은 '부모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세종=정대환 기자 vishalist@

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생활 인프라 부재도 문제

대학과 일자리를 배제하더라도 지방엔 청년들이 떠나야 할 이유가 널렸다.

한국지리행정연구원의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지자체의 대응방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비중은 점점 격차가 좁혀졌지만, 청년 인구 비중은 점점 벌어졌다.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청년 비중은 54%, 비수도권 청년 비중은 46%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북, 강원, 경북 순으로 청년들의 이탈률이 높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주된 사유는 입시와 취업이지만, 생활 인프라 부재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성은 서울이 2.85km, 가장 먼 경남이 31.54

84개 군급도시 92% 영화관 없어 충북 제천 5년째 민간분양 끊겨

km로 나타났다. 시·도별 문화시설 수도 서울 120개, 경기 228개인 반면, 대구가 13개, 제주 12개로 가장 적었다. 공연문화시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이 2.08km, 강원은 13.32km, 도서관도 서울이 1.04km, 강원은 9.15km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 접근성도 서울이 1.90km일 때 경북은 8.03k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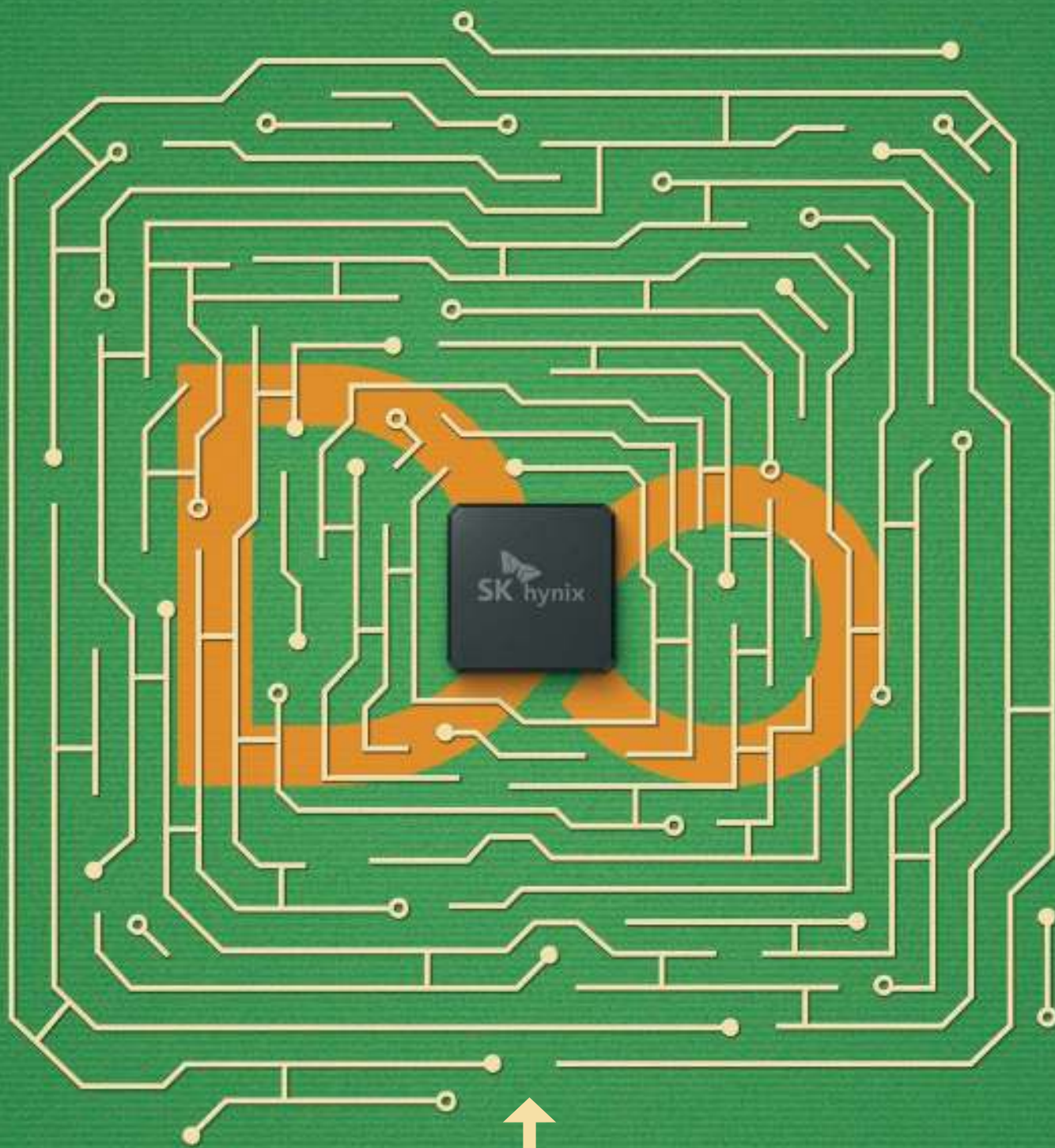
시설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84개 군급도시의 91.7%는 영화관이 없고, 67.9%는 미술관이, 77.4%는 과학관이 없었다.

'새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방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다. 미분양 우려를 이

유로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꺼려서다. 충북 제천시는 5년째 아파트 민간분양이 없다. 제천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 주민들 입장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한동안 민간분양이 끊겼던 전북 김제시는 8월 분양에서 청약접수 경쟁률이 최고 4.61대 1을 기록하는 흥행을 거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에선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안은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박준상 기자 jooon@

미로를 통과해 더 큰 미래와 만나보세요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에서 출발해
더 좋은 반도체에 도전하고
더 많은 기업들과 상생하고
더 나은 내일의 길을 찾는 끊임없는 실행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李 AI·빅데이터 청년위원 영입

尹 “청년은 국정 운영 파트너”

30대 선대위원장 등 청년 영입에 올인
청년 중심 특위 만들어 대형공약 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을 들이는 20·30대 표심 잡기에 따라 선거대책위원회가 청년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39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데 이어 1일에는 20·30대 4명을 선대위원으로 영입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인재 영입 발표’에서 직접 영입인재들을 소개했다. 영입인재들은 이 후보 면전에서 독단적인 면과 선입견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게 직접 연락을 줘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로써 선대위는 조 선대위원장부터 4명의 선대위원까지 모두 2030으로 구성됐다. 중진 의원 십수 명이 즐비한 이전 선대위에서 대폭 변화를 준 것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광주 선대위의 영향으로 보인다. 송갑석 의원 외에 9명 선대위원 모두 10~30대로, 18세 고등학생도 포함됐다.

영입된 2030 선대위원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뇌과학 등 전문성을 고려해 선대위 내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 총괄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당사 기자회견에서 “선대위원직은 당연직으로 맡는 거고, 전문성과 여러 상황에 따라 선대위 내 위원회나 자문 등 여러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며 “다른 분야 인재 영입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 영입을 상징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실무적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달 내내 주 1회 각 분야 인재영입을 발표하며 선대위 구성을 완료해 본격 가동하면,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공약들을 제시하는 수순이다.



이재명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과학인재 영입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30 선대위 구성이 추진되는 한편 남은 과제는 이른바 ‘리딩(leading) 공약’이다. 기본소득 등 기존 대표공약 외에 이목을 끌 만한 대형 공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처럼 대선 화두가 될 만한 대형 공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형 공약은 2030의 관심사와 연결시킬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는 게 부동산과 가상자산의 연결이다. 선대위에서 정책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김포공항 이전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게 검토되는데 이런 부동산 개발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연동시키면 2030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옛새끼 청년 행보...이준석과 연락 안해
“의견차 있을 수 있어 복귀하면 만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째 청년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청년의 정치 참여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정작 20·30대 남성에게 큰 지지를 얻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1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미래먹거리 현장을 둘러보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의 청년 행보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한 학생이 ‘청년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자 윤 후보는 “청년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은 정치의 대상적 수행자가 아니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위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실제 청년을 강조하는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일정 등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분 일정에 청년을 동행할 예정이며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고한 청년보좌역도 활용해 소통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후보는 20대 남성 등 청년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전날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 불만을 나타내며 돌연 휴대전화를 꺼 놓고 잠적했지만, 윤 후보는 직접 연락을 취해 보지도 않은 상황이다.

윤 후보는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 등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



윤석열 후보가 1일 충남 천안시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부산에 있다고 하니깐 좀 생각도 정리하고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면 만나겠다”고 얘기했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이것이 기업인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며 “대통령령을 촌촌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박준상 기자 jooon@

尹 지지했던 청년단체, 李 지지 선언

“이준석 지위 부정하며 패싱”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20대 당원과 지지자로 구성된 ‘팀 공정의 목소리’가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 단체 ‘팀 공정의 목소리(이하 팀 공정)’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지지 철회 의사를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유로 이러한 선회 결정을 하게 됐다.

안승진 팀 공정 대표는 “오늘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는 변화를 갈망해 모여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하고 각자가 가져갈 전리품을 챙기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중국에는 선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지위를 부정하며 패싱을 일관해 이 대표가 스스로 당무를 거부하게 만드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의힘의 청년 세대에 대한 불통 행위는 가히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저와 팀원들은 윤 후보의 결을 떠날 것을 선언한다. 윤 후보의 결에서는 저희의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곳에는 ‘미안하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팀 공정의 합류 배경에 대해 “국민의 힘 청년 지지자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했다”며 “양성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길래 (접촉했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의 모습을 여기서 말할 순 없지만, 이분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이 후보는 소통에 매우 능하신 분이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월호 발매

COVER STORY

시니어를 위한 MZ세대 설명서

PART1 '가치 있는 삶' 소비로 표현하는 MZ

PART2 시니어와 MZ세대 간의 간극은?

PART3 MZ세대를 이해하는 진짜 '코드'

PART4 MZ세대에게 투자하라!

PART5 언제 어디서든 취향을 삽니다, 오픈런

신라보가 만난 사람

김일주 드림크린터내셔널 회장
혁신과 사람, 두 키워드가 완성시킨
위스키 대부

생활 속 법률 상식

계약으로 효도 보장받을까?

구해줘 부동산

비과세 특례로 본 상속주택

느린 여행

한가로운 풍경이 된 역사 속에 서다

전통 정원의 멋

거창 용암정

참 좋은 시절

이주호

"내 고민과 번민, 공감 기대하며 노랫말에 녹이지요"

'여행을 수놓다' 신명숙 작가 인터뷰
60대 67개국 여행자, 늦은 나이란 없다

감성 예술! 미술관 여기

흥미롭다, 도자(陶器)의 소우주

슬기로운 투자생활

퇴직 후 자산관리의 복병,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하기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법인도 오피스텔·상가 ‘빚투’…기업대출 첫 1500조

3분기 52조2000억 급증 도소매·숙박·음식점 대출 13조 ↑ 제조업 투자 6년 9개월 만에 최대

부동산업 관련 대출 증가 폭이 2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에 대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과 빌라, 연립주택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시설자금용 투자 증가규모 역시 2분기째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제조업 관

련 투자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은 전분기보다 52조2000억 원(3.5%) 증가한 1530조7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69조1000억 원(5.5%) 증가 이래 5분기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64조7000억 원(12.1%) 늘어 직전분기(11.3%)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분기보다 7조7000억 원(1.9%) 증가한 412조5000억 원을, 서비스업은 41조2000억 원(4.4%) 확대된 986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업은 13조8000억 원 늘어난 321조5000억 원을 보였다. 이는 2분기(+12조1000억 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낸 것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법인도 빚투에 나서면서 상업용 오피스텔과 상가 쪽 투자가 많았다. 정부 가계대출규제로 아파트 투자가 빌라와 연립주택이나 상업용 부

동산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구매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잡히다 보니 시설자금용 투자가 늘어난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도 12조9000억 원 증가한 306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18조8000억 원)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중 예금은행 대출금 규모는 203조6000억 원으로, 이중 자영업자 대출금(109조 원) 비중은 53.5%로 직전분기와 같았다. 코로나 재확

산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수요를 중심으로 늘어난 가운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용도별로 보면 운전자금은 28조7000억 원 증가한 899조7000억 원을, 시설자금은 23조5000억 원 확대된 631조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제조업 시설자금은 4조8000억 원 증가한 161조3000억 원을 보여 2014년 4분기(+5조8000억 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신성장산업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김민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OECD 주요국 성별 기대수명 (단위:년)			
남자 OECD 평균	77.9	여자 OECD 평균	83.2
아이슬란드	81.7	일본	87.7
일본	81.6	한국	86.5
노르웨이	81.6	프랑스	85.3
스위스	81.1	스위스	85.2
호주	80.9	스페인	85.1
아일랜드	80.8	호주	85.0
이스라엘	80.7	핀란드	85.0
스웨덴	80.7	노르웨이	84.9
한국	80.5	이스라엘	84.8
뉴질랜드	80.3	이탈리아	84.7
이탈리아	80.1	아일랜드	84.7
캐나다	80.0	아이슬란드	84.5

※ 출처: 통계청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5세…10년 새 3.2년 ↑

女 86.5세 OECD서 일본 다음 男 80.5세, 女와 격차 계속 줄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10년 새 3.2년 증가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기대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일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서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출생아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80.5년, 여자는 86.5

년으로 전년도 각각 0.2년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남녀 평균은 83.5년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0.2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3.2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0년으로 2019년과 유사했으며,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남자는 9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자는 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4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41.5년, 여자의 기대여명은 47.3년으로 전년도 0.2년씩 증가했다.

60세 남자는 23.4년, 여자는 28.2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년 대비 각각 0.1년, 0.2년씩 기대여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2.6%, 여자 81.5%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남자는 0.8%포인트(P), 여자는 0.5%P 각각 상승했다.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1.3%, 여자 5.0%였다.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이 없어진다면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3.6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4년, 폐렴이 사라지면 0.9년씩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시도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서울(84.8년), 세종(84.4년), 경기(83.9년) 순으로 높았고, 경북(82.6년)과 충북(82.6년) 순으로 낮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제주(7.5년)가 가장 컸고, 세종(4.3년)이 가장 작았다. 2017년과 비교해 기대수명은 세종(1.4년), 제주(1.2년)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2.6년, 여자는 3.3년 높았다. 여성 기대수명은 회원국 가운데 일본(87.7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남성은 OECD 평균보다 2.6년 높았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원자재 급등에 제조업 생산비 3.5% 증가”

산업연구원 3분기 제조업 보고서

올해 3분기 원자재 수입가격이 4년 새 30%가량 상승하면서 제조업 생산비가 3.46% 증가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산업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과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관세청 통관통계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올해 3분기 가스(원유), 금속광물(철광석), 비금속광물(구리 및 알루미늄) 등 3대 원자재 수입가격을 2017년과 비교해 생산비 변동을 추정했다. 그 결과 원유와 비철금속 가격이 각각 36.3%, 33.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광석은 단순 비교하면 가격이 무려 147.3% 상승했으나 연구원은 철광석이 계약 시점과 인도 시점의 시차가 있어

가격이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30.3% 오른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3대 원자재 가격 변동은 전 산업에서 2.28%, 제조업에서 3.46%의 생산비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종별로는 석유정제(13%), 1차 금속(6.45%), 비금속 광물(3.17%), 화학(2.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제조업 중에선 전기·수도·가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생산비가 6.86%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돼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채산성이 악화되거나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해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VR 굴착기 몰아보세요

국내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SW) 융합 박람회 ‘소프트웨어브 2021’이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소프트웨어브 2021은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여 SW 중심의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 관계자가 VR 굴착기 시뮬레이터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지원 예산 OECD 수준으로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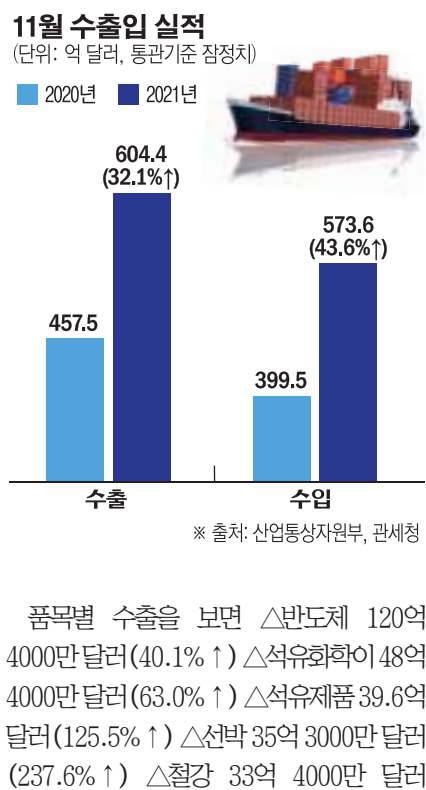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체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아동,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구정책 추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 대응 역시 필요하고, 동시에 가족지원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압박, 지역소멸 현상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지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동시에 인구 측면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짐으로써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미시적 복지정책 위주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하락의 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회 각 부문에 존재하는 낡은 관념에서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모색해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

11월 수출액, 사상 첫 600억 달러 돌파

32% 늘어 두달 만에 기록 경신 반도체·석유·선박·철강 강세 이달 중순께 연간 신기록 깰듯

11월 우리 수출이 32.1%의 큰 폭으로 성장하며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증가하며 월간 수출액 최대치 달성에 힘을 보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32.1% 증가한 604억 4000만 달러, 수입은 43.6% 증가한 573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0억 9000만 달러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월간 수출액 종전 최고치인 올해 9월의 559억 2000만 달러 기록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이는 2000년 이후 4번째로 긴 기간이다.



(45.9% ↑) △컴퓨터 17억 3000만 달러(73.5% ↑) 등이 크게 증가했다. 차부품(-2.2%)과 바이오헬스(-0.7%)를 빼곤 15대 품목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은 15개월 연속, 중국과 중남미는 13개월, 아세안과 인도 및 소련독립국가연합(CIS)은 9개월, 일본과 중동은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시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수출은 3.9% 증가했는데 올해 11월은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30%대의 큰 폭 증가를 기록했던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 지난 9~11월 3개월간 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 1~3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월평균 수출도 550억 달러를 웃돌고 있어 올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달 중순쯤 사상 최대 수출액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오미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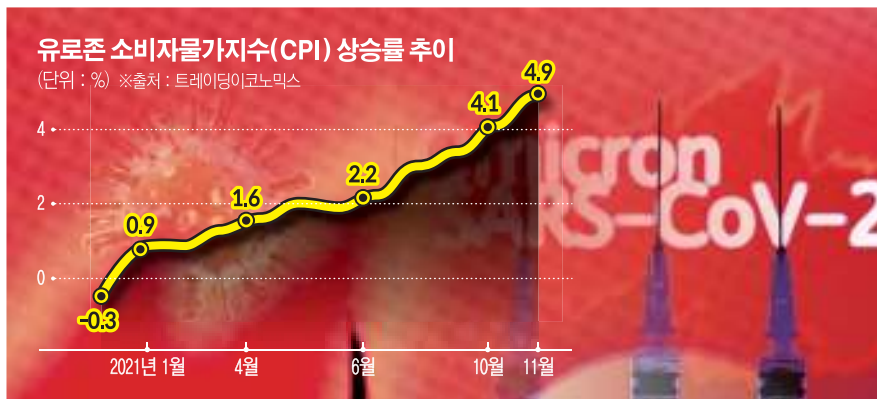
‘O의 공포’ 인플레 잡을까 부추길까

소비 감소땀 가격하락 압박 관측
공급망 혼란 땀 에너지값 상승

유로존 CPI 상승률 사상 최고치
최악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이 인플레이션 촉진과 억제 중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 시장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오미크론이 공급망 혼란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물품이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소비가 감소한다면 인플레이션 하락 압박이 될 수 있다고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파동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기 쉬운 미국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25일 0.64%에서 현재 0.56%까지 떨어졌다. 오미크론에 따른 물가 상승세 둔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오미크론이 어느 지역에서 확산할지 때

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즈호리서치&테크놀로지사의 오타도모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서구권은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소비되는 휘발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해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이라며 “반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감염이 확대되면 공장이나 항만 노동자가 취할 수 없게 돼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심화시켜 인플레이

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델타 변이가 확산했을 때에도 사람들의 이동은 줄었지만, 상품 소비는 되레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델타 감염 확산 때 있었던 반도체 부족 현상이다. UBS수미트러스트웰스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일본 지역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물품의 이동 규제나 심사가 강화하면서 물류 정체에 따른 물품 부족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품 파월 연준 의장도 고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의 조기 종료로 언급하면서, 긴축정책의 가속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6.2%

급증했으며, 11월 유로존 CPI는 4.9%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날 발표된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9월 전미 주택가격지수는 연율 19.5%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7~월 대비 소폭 둔화한 수치지만 피닉스, 탬파, 마이애미 등은 모두 20~30%대 상승률을 보였다. 심지어 연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적은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워싱턴D.C. 등도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지표는 모두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하기 이전이다. 향후 오미크론의 영향에 따라 물가 상승률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소비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라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yun@

파월 “테이퍼링 조기 종료 논의”

변이 공포 속 긴축 시사, 시장 출렁

‘바이러스’와 ‘테이퍼링’ 공포가 동시에 시장을 강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처음으로 보고된 지 열여섯 만에 지구촌 6개 대륙을 모두 뚫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더욱 높여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변이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의 긴급자금 수혈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출렁였다. 그러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한국 등 아시아 증시는 1일 일제히 반등했다.

전날 전 세계 증시는 오미크론 확산과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 쇼크로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 1.86% 하락으로 장을 마쳤다. S&P500지수는 1.9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1.55% 각각 내렸다. 유럽도 흔들렸다. 범유럽 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600지수는 0.92% 빠졌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가 시장을 공포에 빠트렸다. 브라질에서 두 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 세계 6개 대륙이 모두 오미크론에 뚫리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HO에 보고하기 전 네덜란드에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예상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지역 내 전파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발언도 시장 불안을 부채질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준은 지난달 FOMC에서 테이퍼링 완료 시점을 내년 중순으로 제시했었다. 파월 의장은 기존 인플레이션 전망도 수정했다. ‘일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백신 특허 풀어라” 거세진 목소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날부터 3일까지 제12차 각료회의를 열고 백신과 치료제 등의 교역 활성화를 논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따른 각국의 여행 제한 조치를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WTO가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아 전 세계 백신과 치료제 보급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한다. 제네바/AFP연합뉴스

‘일하는 노인·여성’ 늘고 ‘일하는 젊은 사람’ 줄었다 日 생산가능인구, 70년 만에 60% 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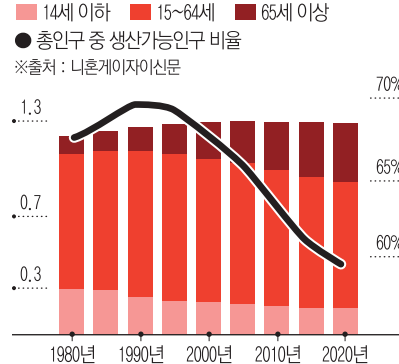
고령화, 일본 경제성장 발목

일본의 인구 고령화율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에서 경제주체 연령층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생산성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고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총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5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6.6% 증가한 3602만663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대상인 75세 이상 인구도 5년 사이 14.3% 증가한 1860만1808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5.8% 줄어든 1503만1602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령화율은 5년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8.6%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16.6%)과 독일(21.7%), 이탈리아(23.3%) 등 다른 선진국의 고령화율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일본 인구 변화 추이 (단위: 억 명)



보였다고 닛케이이는 설명했다. 총인구는 1억2614만6099명으로 5년 전보다 94만8646명 줄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7508만7865명으로 5년 전보다 226만6232명 감소했다. 이는 고점이었던 1995년(8716만4721명)과 비교해서는 13.9% 감소한 것이다.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비율은 59.5%로, 1950년 이후 70년 만에 60%대가 무너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그만큼 일본 경

제 발판이 좁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과 노인의 취업이 늘면서 인구 감소 충격을 다소 상쇄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6676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6% 늘었다. 하지만 여성과 노인 취업 확대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그 여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닛케이이는 경고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노동시간당 기준) 증가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1%로 일정한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시간당 생산한 부가가치는 48.1달러(약 5만6700원)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4.0달러도 밑돌았다.

이에 생산성을 올리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철저한 자동화 시스템과 무인트럭 배송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블프’ 이어 ‘사면’도 첫 온라인 역성장

공급망 병목 현상·할인을 저하 영향

공급망 혼란에 올해 미국 최대 쇼핑축제 열기가 식었다. 블랙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와 사이버먼데이(추수감사절 다음 주 월요일) 모두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물류대란 여파로 할인은 줄고 행사 기간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어도비를 인용해 전날 하루 동안 열린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판매가 107억 달러(약 12조7000억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8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며 어도비가 추정했던 113억 달러에도 못미쳤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액 역시 89억 달러로 지난해의 90억 달러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이에 따른 운임 상승 등을 이유로 할인 폭이 줄었고,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행사 기간을 기존보다 더 길게 진행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당일에 집중된 소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월마트와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공급망 문제로 12월 제품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여 빠르게 행사를 시작하면서 정작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에 당일 실적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도비디지털인사이드의테일러 슈라이너 이사는 “10월부터 시작한 조기 판매로 소비자들은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에 같은 행사를 기다리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CNBC방송 역시 “이 같은 현상 일부는 10월부터 블랙프라이데이 형식을 차용한 행사를 홍보해온 아마존 등의 기업에 의해 조장됐다”고 지적했다.

예상을 밑도는 할인율도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올해 사이버먼데이에 판 매된 전자제품 평균 할인율은 12%를 기록해 지난해 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 할인율 역시 18%를 기록해 지난해(20%)보다 낮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매출은 감소하게 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 위해 금융당국 잔걸음

은행 디지털 담당 임원들 만나 애로사항 청취...실무검토 착수 “빅테크와 공정 경쟁 환경조성”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빅테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에 들어갔다.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시중은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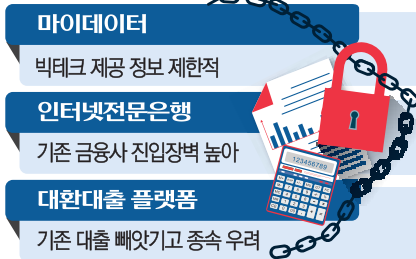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과장은 지난 달 초 시중은행 디지털 담당 임원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에서 디지털

담당 임원이 자리했고 하나은행은 하나금융연구소 측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시중은행과 빅테크와의 규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발언한 이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자리라 마련된 것이다. 이날 산업과장 뿐만 아니라 금융위 담당 직원들도 참석해 은행권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후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자리는 금융위원장이 이전에 이야기한 시중은행과 빅테크 간 규제 차이를 좁히기 위해 후속으로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던 자리라고 알고 있

금융사·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



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규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진지하게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시중은행 디지털 인력을 수시로 불러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전임 위원장 때 빅테크에 치중됐던 관심이 기존 은행권으로 조금 돌아온

모양새”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그동안 빅테크 기업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워 기존 금융사가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당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고 위 원장은 지난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5대 시중은행장과 만나 “그동안 빅테크, 핀테크가 금융분야에 진출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금융 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와 시중은행 간담회에서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그룹이 하나의 슈퍼 앱(Super App)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은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등 금융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개념이다. 이에 금융위와 시중은행 디지털 임원은 이번 만남에서 망분리 합리화와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근 기자 nova@·김유진eugene@

저축은행장 만난 정은보 “대출 억제해달라”

저축銀 CEO들과 간담회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자산규모 따라 차등화” 리스크 취약 부문 선제 대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건전성감독을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일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를 경험한 만큼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난달에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도 저축은행 등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저축은행업계의 숙원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시행사)가 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부동산 PF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돼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반영돼 있다.

정 원장은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춰 서민과 중소기업에 위한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써보니... “내가 든 보험이 이렇게 많았나”

현장에서

“또래 부자들과 금융자산 중 보험이 가장 많아요.”

1일 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시행돼 본지 기자가 직접 A은행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은 결과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A은행 앱에서는 타행에서 받은 대출은 물론, 현재 증권 계좌에 얼마의 손익이 발생했는지도 증권사 앱에 들어가지 않고 한번에 조회할 수 있었다. A은행 앱은 기자에게 “또래 부자보다 입출금 비율이 낮다”며 예금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돼 한 달 전인 이날부터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해 시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금융소비자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 정보를 스마트폰 등에서 한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는 A은행, B카드, C보험, D증권 등 복수의 기관에 저장된 정보를 모아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과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스크래핑 방식 즉,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긁어오는 방법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스크래핑 방식은 보안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표준 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날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은행권 사업자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

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이며 카드는 국민·신한·하나·BC·현대카드 등이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유일하며 핀테크는 뱅크샐러드와 핀크가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달 중으로 SC제일·광주·대구·전북은행 등 20개 사가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 분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예비허가만 받은 10개의 사업자는 분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참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하나의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대 50개 회사의 정보를 수집해 금융 정보를 통합조회하거나 자산·재무 분석, 소비·지출 관리, 개인화 상품 추천 등을 제공하는 ‘머니버스’를 출시했다.

기업은행도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에 맞춰 ‘i-ONE 자산관리’를 출시했다. 고객의 자산과 소비내역, 종합적인 자산현황 등에 더해 고객이 보유한 펀드, 투자 성향 등을 분석해 예측금 및 펀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시세와 고객의 자산 정보를 활용해 내집 내차 마련 금융 전략 ‘부동산,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내용을 계획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책안을 통해 시범 서비스 동안 발생한 개선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문수빈 기자 bean@

한화생명,투자부문 신설...5부문 6본부 체제로

경영혁신부문에 나채범 금융위 출신 임원 영입도

한화생명은 1일 기존 3부문 6본부를 5부문 6본부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밝혔다. 경영혁신위원회를 경영혁신부문으로 변경하고, 투자사업본부와 전략투

자본부를 통합한 투자부문을 신설했다. 경영혁신부문장은 나채범 부사장을 임명했다. 투자부문장은 신민식 전무가 맡는다.

경영전략실 소속 두 명의 외부인사도 영입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AT커니 대표와 PWC 스타레티지앤드 대표를 지낸 하상우 대표가 부사장으로 경영전략실장 업무를 수행한다.

경영전략실 담당 임원으로 금융위원회 서기관 출신 이한샘 상무도 영입했다. 이 상무는 지난 10월말까지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중소기업과, 산업금융과, 경영혁신과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한화생명에서는 미래성장 전략과 신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서지연 기자 sjy@

삼성화재, 폐기물 처리도 보장하는 보험 내놔

삼성화재는 가정종합보험 신상품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슬기로운 가정생활’은 화재로 인한 손해 및 잔존물 제거 비용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보장한다. 화재보장 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폐기물

운반 및 매립, 소각 등의 비용이 실손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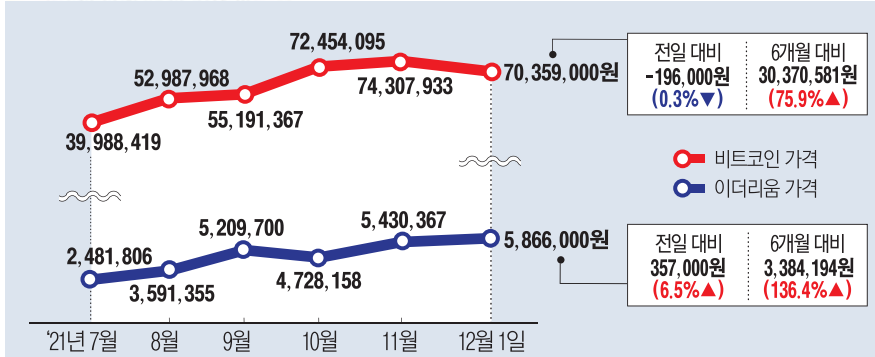
가재도구 보상도 현실화했다. 통상 불에 탄 가재도구는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후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주택 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새 가재도구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된 보상액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풍수해도 보장된다.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 가입 시 태풍, 홍수, 폭우 등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도 태풍으로 인한 베란다 유리창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늘어난 고가의 가전제품에 대한 보장도 보강됐다. 20대 가전제품 및 7대 문화용품 고장수리비용이 그 주인공이다.

서지연 기자 sjy@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1년 12월 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706,500	4,500 (0.6%▲)	이오스	5,000	96 (2.0%▲)
리플	1,248	21 (1.7%▲)	트론	121	1 (0.8%▲)
라이트코인	265,200	13,700 (5.4%▲)	스텔라루멘	424	2 (0.5%▲)
에이다	1,973	23 (1.2%▲)	비트코인에스비	185,800	2,200 (1.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계 큰손 다 팔아도 ‘비츠로셀·솔브레인’ 샀다

“자존심이 좀 상하더군요. 한국을 잘 모
른다고 생각했던 외국계 펀드가 될만한 종
목을 잘 뽑아내고 있거든요.”(국내 운용사
펀드매니저 A 씨)

〈LG그룹 회장〉

구광모의 新성장 히든카드 ‘초거대 AI’ 베일 벗는다

14일 ‘LG AI 토크콘서트’

LG 그룹 내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존 재감이 커지고 있다. AI 기술 전담 조직인 LG AI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연구 성과가 조만간 베일을 벗는다.

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LG AI 연구원은 이달 14일 비대면 방식으로 ‘LG AI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가 개최되는 건 지난해 12월 조직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에선 업계 우수 학자들의 기조연설과 다양한 AI 기초·응용 연구 성과가 발표돼왔다.

특히 이번 열리는 AI 토크콘서트에선 LG AI 연구원의 주력 과제인 ‘초거대 AI’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발표될 전망이다. LG그룹은 앞서 올해 5월 향후 3년간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개발에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초거대 AI’ 1차 연구 발표 예상

6000억개 이상 파라미터 기반
현존 최고 ‘GPT-3’ 추월 촉각

내년 사내 AI 대학원 확대 개편

외부인재 영입 등 역량 강화 올인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차적인 연구 성과를 올 하반기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의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간의 뇌처럼 정교하고 종합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고·학습·판단·행동할 수 있다.

업계 관심은 LG그룹이 선보일 초거대 AI가 현재 가장 유명한 초거대 AI인



배경훈 LG AI연구팀장이 지난 5월 열린 ‘AI 토크 콘서트’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 LG

‘GPT-3’를 가시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다. ‘GPT-3’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세운 비영리단체 ‘오픈 AI’가 지난해 선보인 초거대 AI로, 정교한 언어모델을 갖추고 있어 자연스러운 대화는 물론 수필이나 소설까지 써낸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도 올해 초거대 AI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며 ‘한국판 GPT-3’, ‘GPT-3보다 우수한 초거대 AI’ 개발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LG의 초거대 AI는 우선 GPT-3보다 3배가량 많은 파라미터를 무기로 앞세운다. 파라미터는 AI 모델의 크기와 성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클수록 AI 지능이 높다는 뜻이다. GTP-3가 가진 파라미터는 1750억 개인 반면, LG 초거대 AI는 6000억 개 이상을 목표로 한다.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언어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분석, 데이터 추론 기능까지 갖춘 AI 모델로 산업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계열사 사업에 AI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우선 올해 시범 운영 중인 AI 관련 사내 대학원이 내년 확대 개편된다. LG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계열사 임직원 3~4명이 교육 과정 검증을 위한 프리테스트 진행 중”이라며 “성과 등을 점검한 뒤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 측은 AI 연구원이 출범한 지난해 12월, 연구 인력 규모를 올해까지 100

여 명, 2023년엔 1000명대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인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외부 인재 수혈에 더해 내부에서도 AI 전문 인력을 키우려는 시도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초 확대 개편한 LG전자 ‘이노베이션 카운실’의 첫 논의 주제도 AI였다. LG 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LG 계열사까지 범위를 넓혀 뉴로-심블릭AI나 초거대 AI와 같은 미래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했다.

그룹 차원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AI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구광모 회장의 경영 전략과도 맥이 맞닿아 있다. 지난달 말 시행된 임원 인사에서도 구 회장의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은 이번 인사에서 상무 승진 3년 만에 전무로 승진했다. 우수 인재 확보와 초거대 AI 등 기술 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노우리 기자 we1228@



성인희(가운데)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과 조흥식(왼쪽 두 번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연말 이웃사랑성금 500억 쾌척

참여 계열사 13곳 → 16곳 확대 임직원 자발적 기부금도 포함

삼성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5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삼성은 1일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삼성전자 사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성인희 사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삼성과 모금회의 변함없는 협력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 이웃사랑성금 기탁에 참여한 계열사는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16개사로 늘어났으며, 각 회사는 자체적으로 대외 기부금 출연 승인 절차를 거쳤다.

특히 올해는 회사 기금 외에도 수만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을 성금에 포함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삼성은 사회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7200억 원을 전달했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억 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 원 △2011년은 300억 원 △2012년부터는 500억 원씩 매년 내왔다. 삼성이 전달한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은 유니세프, 푸른나무재단, 한국생명연화, 환경재단,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등 8개 NGO(비정부단체)와 함께 제작한 2022년도 달력 31만 개를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 비전에 따라 삼성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우리 사회에 더욱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9년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메시지를 통해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달 고(故) 이근희 회장 1주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라며 삼성의 사회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3분기 폴더블폰 판매 260만대… 삼성 ‘독주’

출하량 전년 대비 480% 성장

갤Z 앞세운 삼성, 점유율 93%

전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이 어가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

1일 디스플레이 시장조사업체 DSCC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은 260만 대로 전 분기대비 215%, 전년 대비 48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전 4개 분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립3와 Z폴드3 흥행에 힘입어 전체 폴더블폰 출하량의 93%를 차지했다. 2위 화웨이에는 6% 점유율을 기록했다.

DSCC 설립자이자 CEO(최고경영자) 로스영은 “삼성전자는 지난 8월 갤럭시Z 폴립3 및 Z폴드3를 보다 매력적

분기별 폴더블폰 출하량 (단위: 대)



인 가격에 출시하고, 강력한 프로모션과 보상 판매를 통해 폴더블 시장의 전례 없는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삼성 갤럭시Z폴립3가 60%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갤럭시Z폴드3로 23% 점유율을 기록했다. 갤럭시Z폴립 5G가 7%의 점유율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모델이었다. 화웨이 메이트X2와 X2 4G는 각각 3%를 차지했다.

폴더블폰 성장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

질 전망이다. DSCC는 4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이 380만 대로 3분기를 넘어 사상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지배력을 더 키우며, 무려 95%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갤럭시Z 폴립3 비스포크 에디션’을 내놓으며 폴더블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DSCC는 내년 폴더블폰 출하량 전망치도 기존 1590만대에서 1750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폴더블폰 출하량은 올해 750만대에서 내년 1750만 대로 133%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치 상향은 삼성전자가 내년 폴더블폰 목표치를 높였고, 반도체 부족으로 지연된 물량이 내년에 추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화웨이, 오포, 아니, 샤오미, 모토로라 등도 폴더블폰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반도체 대란에 완성차 11월 ‘역주행’

판매량 전년 대비 15% 감소

르노삼성만 수출 1250% 급증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11월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다. 르노삼성의 수출을 제외하면 완성차 5사의 국내외 판매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1일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에서 6만2071대, 해외에서 25만531대 등 총 31만260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17.1%

감소한 규모다. 국내 판매는 11.4% 줄었고, 해외 판매는 18.4% 빠졌다. 기아 역시 국내에서 4만6042대, 해외 17만6190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한 22만 2232대를 파는 데 그쳤다. 국내 판매는 8.9%, 해외는 14.3% 감소했다.

한국지엠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한국지엠의 국내외 판매는 총 1만2274대에 그쳐 전년 대비 42.6%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2617대(-60.1%), 수출은 9657대(-34.9%)였다. 다만 반도체 공급난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전월(10월)과 비교해서는

판매량이 78.5%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수출은 전월 대비 121.0% 증가했다.

르노삼성은 수출로 약간 중이다. 프랑스 본사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를 넉넉하게 확보해 놓은 르노삼성은 전년 대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감소한 6129대에 그쳤지만, 수출은 1만1743대에 달해 전년 대비 1250% 급증했다.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쌍용차는 지난달 8778대를 판매해 작년 동월 대비 26.0% 감소했다. 국내 판매는 6277대로 작년 동월보다 32.3% 감소했다.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2501대에 그쳤다. 김준형 기자 junior@

LS일렉트릭, 신재생 에너지사업 출사표

LS일렉트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세계 4위 기업 ‘EDP리뉴어블(EDPR)’과 손 잡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진출한다.

LS일렉트릭은 1일 서울 LS용산타워에서 EDPR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과 건설·운영·솔루션 공급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07년 출범한 EDPR은 유럽과 북미·중남미 등 16국에 12.2GW(기가와트) 규

모의 전력 생산설비를 갖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풍력발전 270개소, 태양광 15개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 2조3000억 원을 기록한 다국적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는 물론 등 EDPR의 글로벌 주요 거점에서 풍력과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모색한다.

노우리 기자 we1228@

“철강사 이미지 탈피” 포스코, 지주사 전환 시동

포스코가 ‘철강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내부 전담팀을 꾸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방식을 논의 중이다.

오는 10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된 뒤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스코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

나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주력 상품인 철강 제품 외에도 수소 생산이나 2차 전지 등 여러 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 4월 광석리튬 생산법인인 포스코 리튬솔루션을 설립했고, 5월에는 2차전지 원료를 추출하는 역할을 맡는 포스코HY 클린메탈도 신설했다.

하지만 외부에선 포스코는 여전히 ‘철강업’이란 이미지에 갇혀있다.

최근 포스코는 올해 3분기 영업실적이 3조 원을 기록했는데도 주가가 20만 원 후반대에 머무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철강사’ 이미지 탓에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환 방식은 사립회사와 투자회사가 분리된 뒤 사업사 아래로 자회사가 들어가는 형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산 기자 jinsan@

한화임팩트, 美서 172MW급 수소발전 수주

뉴저지주 린든 열병합발전소
수소혼소 가스터빈 1기 개조
이산화탄소 감축 저탄소 발전

한화임팩트가 미국에서 수소 혼소(혼합연소) 가스터빈 개조 사업을 신규 수주했다.

한화임팩트는 미국 뉴저지주 린든 열병합발전소(Linden Cogeneration)에서 172MW급 천연가스 가스터빈 1기를 수소 혼소 발전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최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수소 혼소는 기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가스터빈을 개조해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저탄소 발전 기술이다.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수소 혼소 방식으로 개조하는 기술을 보유한 한화임팩트는 린든 열병합발전소 가스터빈을 수소 혼소율 40%로 개조할 계획이다. 수소 혼소율은 연료 중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로, 수소 비율이 높을수록 탄소 감축 효과 또한 높아



미국 뉴저지주 린든 열병합발전소 전경(왼쪽). 수소 혼소 발전의 주요 부품인 FlameSheet 연소기.



진다.

한화임팩트가 인수한 PSM과 토마센 에너지는 2018년 네덜란드 열병합발전소에서 123MW급 가스터빈 발전기 3기를 수소 혼소율 25%로 개조한 바 있지만, 수소 혼소율 40%를 상업 가동 중인 가스터빈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9 pp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 질소산화물 처리기술을 도입하고, 인근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연료로 재활용해 연료비도 낮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수주액은 밝히

지 않았으나 수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임팩트는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수소 혼소율을 개선하는 실증 사업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화임팩트는 노후화로 가동이 멈춘 80MW급 평택1복합 발전소 가스터빈 2호기를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소에서 자사 대산 공장으로 옮겨 수소 혼소 실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임팩트는 발전 출력과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소 혼소율을 5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LNG 발전 대비 2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평택1복합 발전소 가스터빈 2호기에 대해 최근 해체 작업에 돌입했고, 연말께 가스터빈을 한화임팩트 대산 공장 부지로 옮길 예정이다.

한화임팩트는 2023년 1분기까지 실증 사업을 완료하고, 수년 내에 수소 혼소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화임팩트는 앞서 수소 혼소 발전 기술을 보유한 미국 PSM과 네덜란드 '토마센 에너지'를 지난 7월 인수한 데 이어 앞으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미래 먹거리로 수소 혼소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한화임팩트 송용선 수소사업개발담당 상무는 한국서부발전 평택사업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소 혼소 발전은 기존 LNG 발전소의 노후화된 가스터빈을 적은 비용으로 개조해 큰 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

SK머티리얼즈, CEO 등 7명 2022 임원인사·조직개편 단행

SK머티리얼즈는 1일 SK머티리얼즈 CIC(사내 독립 기업)와 산하 자회사에 대한 '2022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SK머티리얼즈 지주 부문과 SK머티리얼즈의 합병을 비롯해 기존 SK머티리얼즈 특수가스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한 신설법인 설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단행됐다.

SK머티리얼즈 CEO에는 이규원 사장이 승진을 통해 선임됐고 그 밖에 총 6명의 임원이 새로 선임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통한 파이낸셜(Financial) 실행 가속화로 '글로벌 첨단소재 1위 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머티리얼즈 내 CIC 조직으로 운영되는 SK머티리얼즈는 사업개발센터(박기선 센터장), BM혁신센터(김완성 센터장), Global Tech센터(하정환 센터장) 조직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산하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 8개 자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통합 포트폴리오를 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TOMMY HILFIGER

www.zasperomall.com



2021 톱기어 어워드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된 현대차 i20 N.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차, 英 톱기어 '올해의 車회사'

고성능 해치백 i20 N '올해의 차'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영국 BBC 톱기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2021 톱기어 어워드'에서 현대차와 'i20 N'을 각각 '올해의 자동차 회사'와 '올해의 차'로 발표했다.

현대차는 '2018 톱기어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된 지 3년 만에 다시 같은 분야에 이름을 올리며 유럽시장에서의 호평을 이어갔다.

현대차가 올해의 자동차 회사로 선정된 이유는 △고성능 해치백 'i30 N'과 i20 N의 뛰어난 성능 △고성능 CUV '코나 N'의 실용성과 운전 재미를 겸비한 다재다능함 △수소 전기차 '넥쏘'의 첨단기술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5'의 혁신성 등 다

양하고 도전적인 상품 제품군을 갖춘 점, 최근 괄목할 기술적 성장으로 고객에게 매력적인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심사위원단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차 i20 N은 톱기어 전문 심사위원단의 주행 테스트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i20 N이 주행 역동성과 운전의 재미가 가장 뛰어난 차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i20 N은 지난달 3일 '톱기어 스피드위크'에서 역동적인 핸들링과 고른 주행능력을 앞세워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BMW M5 CS, 포르쉐 911 GT3, 아우디 RS e-트론 GT 등 총 25종의 강력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우승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금호피앤비화학-OCI 'ECH 생산' 합작법인

금호피앤비화학은 OCI와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하이드린)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ECH는 주로 페인트, 코팅, 건축, 풍력터빈 블레이드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의 원료 중 하나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합작법인은 금호피앤비화학 OCI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가 50:50 지분으로 설립한다.

투자액은 총 2000억 원으로 2024년까지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사말라주산업단지 내에 ECH 10만 톤(t)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앞으로도 양사는 원료 공급과 제품 생산, 공장 운영, 마케팅 부문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OCIMSB는

18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024년부터 ECH 생산에 필요한 원료 CA(클로로알칼리) 10만 톤을 생산해 신규 ECH 공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법인이 생산하는 ECH는 기존 프로필렌 공법으로 생산하는 ECH와 달리 바이오디젤의 부산물인 글리세린으로부터 합성한다.

이 공법은 원료 물질을 바이오 계열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수를 리사이클해 폐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번 합작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친환경 에폭시 수지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다솜 기자 citiz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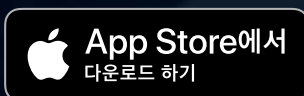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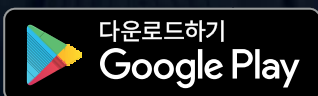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집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위해
집요하게 뭉쳤다!

집요한 부동산 정보 KB부동산



시세정보

실거래가, KB시세, 공시가,
시예측시세까지 입체 분석



매물정보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 찾기



입지정보

역세권, 학세권, 스세권,
의세권 등 다양한 입지 분석



내집내집

실거래 알림, 매물 알림,
예산정보 등 부동산 자산관리

*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으로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홈페이지(<http://kbland.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3158호(2021.11.23) 광고물 유효기한 2022.6.30 까지

〈소프트뱅크〉

‘현실·가상세계 파괴자’ 아크버스… “日 소뱅과 합작”

네이버랩스, 글로벌 확장 청사진

HD맵 공동제작…유럽 등 진출

로봇·5G 등 첨단기술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가속

네이버랩스가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현실과 디지털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 기반 메타버스 생태계 ‘아크버스’를 구축한다. 가상세계에서 로봇에 명령어를 전송하면 현실 세계에서도 실제 로봇이 같은 일을 수행하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 세계 MZ세대를 사로잡은 ‘제페토’와 메타버스라는 결은 같이 하지만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력임을 강조했다.

네이버랩스는 1일 온라인을 통해 ‘네이버 밋업’ 행사를 열고 아크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이터·디바이스·솔루션·시스템들을 소개했다. 또 소프트뱅크와의 협



네이버랩스 석상욱 대표.

력 등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이날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는 그동안 연구 축적한 자율주행·로봇·5G·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등의 다양한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완성할 아크버스의 기술을 소개했다.

석 대표는 “아크버스는 독립된 가상공간이 아닌, 기술로 현실 세계와 상호 연동되

는 디지털 세계를 형성한다. 두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사용자에게 공간의 격차 없는 동등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기존 3D 아바타 가상현실 서비스들과 차이점을 강조했다.

아크버스를 구성하는 솔루션과 시스템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빌딩, 스마트시



네이버랩스의 양팔 로봇 엠비덱스.

티와 같이 현실 세계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인프라가 연결된다는 뜻이다. 연결은 네이버클라우드와 5G를 기반으로 빌딩과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대신하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아크’와 독자적인 실내·외 디지털트윈 데이터 제작 솔루션 ‘어라이크’를 통한다.

석 대표는 “네이버 제2 사옥이라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있었기에 다양한 기술들이 아크버스라는 하나의 생태계로 빠르게 융합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자체, 기업, 학계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랩스는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일본에서 어라이크 솔루션을 활용한 도시 단위 고정밀 지도(HD맵) 제작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대표는 “네이버랩스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우선 파일럿 형식으로 한 도시를 대상으로 HD맵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추가 사업 확장과 조인트벤처 설립 등도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후 HD맵 제작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아크버스 사업을 글로벌 지역으로 확대하고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백종운 네이버랩스 책임리더는 “특정 지역에서 네이버랩스 기술을 활용한 매핑을 진행했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이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정부 손 놓은 동안 6곳 폐업…개성공단 기업들 또 거리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후
5년간 공개변론 한번 없어”

개성공단 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협회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답을 내

놓지 않자 조속한 심판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에 지난해 2월 중단됐던 1인 시위가 1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협회 측은 “개성공단 중단 3개월 뒤 입주기업들이 고심 끝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5년 반이 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았다”며 “탄원서를 세 번이나 모아 전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개성공단이 멈춰선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는 국내에 생산 장비를 갖추고 대체 생산에 나섰다. 30여 곳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대체 부지를 찾아 기업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6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9~2020년 사이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았다. 무기한 휴업 중인 곳까지 더하면 약 20여 곳이 문을 닫은 상태다.

정부가 추산하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액은 7861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협회가 추산하는 피해액은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지금까지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약 5347억 원에 그친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면서 개성공단이 정상화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악재도 공단 정상화를 더 어렵게 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 구두지시로 집행했다는 사실이 2017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지만 합당한 구제 절차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협회 측은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개성공단기업협회

UT 출범 한 달…사용자 수 정체 “1위 카카오 추적 한참 멀었다”

하루 접속자 4만5000명 불과
서비스 개선 필요성 지적

모빌리티 플랫폼 ‘우티(UT)’가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한 달을 맞았다.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사용자 수는 정체하는 모습이다. 반면 ‘1인자’ 카카오는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UT는 지난달 1일 통합 앱을 출시했다. 티맵의 내비게이션 기술과 우버의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1일 아이지이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UT 앱 일간 이용자 수(DAU)는 평균 4만5701명을 기록했다.

출범 첫 날인 지난달 1일 DAU가 6만1778명으로 흥행하는 듯 보였지만,

출시 첫 주 DAU는 이내 3만 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DAU는 4만~5만 명 수준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택시 수요가 늘고 11월 한 달간 이용요금 20%를 할인하는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음에도 UT 앱의 유의미한 이용자 증가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은 앱 사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복잡하고 위치 정확도가 낮아 배차된 택시와 실시간 소통이 어렵단 것이다. 한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UT 리뷰를 통해 “급해서 택시를 부르는 건데 매번 10분 이상 먼 거리 택시를 불러준다”며 “택시기사님도 작동을 어려워하시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적었다.

호출과 동시에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도 지적의 대상이 됐다. 선결제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됐다가 택시에서 내릴

때 이를 환불하고 실제 금액을 결제하는 구조로 결제가 여러 번 이뤄져야 해 복잡하다는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카카오 택시 체제를 막기는 요원해 보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의 지난달 DAU는 평균 139만5829명으로 UT와 30배가량 차이가 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타다와 제휴를 맺고 타다 가맹기사도 카카오T 호출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업영역도 한층 넓히고 있다.

UT가 모빌리티 플랫폼 ‘대항마’로 자리 잡으려면 더욱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UT의 강점은 기술력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업데이트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며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中企 2곳 중 1곳 “연말 성과급 지급”

‘100만~120만 원’ 가장 많아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194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53.1%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애사심 고취를 위해서’(55.3%, 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 노고에 대한 환원, 보상 차원에서’(25.2%),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24.3%), ‘상여급 지급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20.4%)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 성과급 평균 액수는 ‘100만~120만 원’이라는 답변이 18.4%로 가장 많았고, ‘40만~60만 원 미만’(16.5%), ‘40만 원 미만’(15.5%), ‘80만~100만 원 미만’(11.7%) 순이었다.

월 급여와 비교했을 때 연말 성과급의 비율은 평균 ‘약 10~20%’를 꼽은 기업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 30~40%’라고 답한 기업이 27.2%, ‘약 50~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비율이 23.3%였다. ‘약 90~100%’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4.9%로 소수에 그쳤다.

안유리 기자 inglass@

SKT, T멤버십 앱 개편…포인트 적립 선택

SK텔레콤(SKTEL)이 할인·적립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T멤버십 2.0’을 개시한다.

SKTEL은 1일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와 함께 T멤버십 2.0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T멤버십은 기존 할인형과 새로운 적립형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적립형은 고객이 포인트를 쌓아 나중에 원하는 곳에서 해당 포인트로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고객은 본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월 1회, 최대 연 12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SKTEL은 신한카드와 손잡고 T멤버십과 ‘우주패스’에 특화된 ‘T우주 신한카드’도 출시한다.

이다원 기자 leedw@

“햇반 사면 1株 드려요” 식품·금융 컬래버 뜨겁다

MZ세대 타깃 제품 중심으로
재테크 테마 이색 협업 인기
CJ제일제당, 주식 증정 이벤트
hy·프레시지, 구독에 보험 결합

‘플렉스’(Flex) 대신 자산증식에 심혈을 기울이는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식품, 금융업계의 협업이 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주식시장에 밀레니얼 개미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이 MZ세대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는 자사 제품과 주식, 보험 등 금융상품을 연계한 이종 컬래버레이션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신한플러스와 함께 ‘BIG BIG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햇반 컵밥을 사면 BIG(Bio, Internet, Game), 즉 바이오, 인터넷, 게임 종목의 주식을 추첨을 통해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응모권을 통해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개설하면 CJ제일제당,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삼성전자 등 9가지 종목 중 1종목의 주식 1주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식품, 금융상품 이종 협업의 가장 큰 특징은 MZ세대에게 소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실제 햇반컵밥 역시 햇반 시리즈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인기있는 품목이다. 이번 이벤트 대상인 햇반컵밥BIG은 올해 초 기존 햇반컵밥 대비 30% 증량한 제품으로 Z세대를 겨냥해 기획됐다. 컵밥의 편의점 매출은 최근 3년 동안 10% 이상 증가했고, 덮밥류 메뉴 역시 최근 3년 동안 컵밥 시장 내 연평균 10% 성장세를 보이는 점을 반영했다.

앞서 hy도 신한라이프와 제휴를 맺고 MZ공략에 나섰다. 자사 정기구독 서비스와 보험을 결합한 제휴 상품을 선보였다. hy 인기제품 ‘헬리코박터프로젝트월’과 ‘장케어프로젝트 MPRO3’를 정기배송으

식품·편의점 금융협업 사례

업체	상품	내용
CJ제일제당-신한플러스	주식1주 증정	바이오, 인터넷, 게임 종목 중 1주 증정
hy-신한라이프	정기구독 보험	위, 장 건강 보험혜택
프레시지-한화생명	간편식 정기구독보험	1년 만기시 만기보험금 지급
뚜레쥬르-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상품권	50만 원 상당 해외주식 상품권 ‘스탁콘’ 증정
이마트24-하나금융투자	주식 도시락	네이버 등 주요 10개 기업 주식 1주 증정
GS리테일-한화생명	맥주 구독멤버십 보험	1년 만기시 만기보험금 지급

로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위, 장 건강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앞서 결성된 사이버 아이돌그룹 하이파이브와 신한라이프의 대표 사이버모델 ‘로지’간 시너지를 발휘해 고객층을 밀레니얼 쪽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밀키트와 재테크를 동시에 해결하는 ‘간편식 구독 보험’ 상품도 있다. 프레시지는 업계 최초로 한화생명과 손잡고 밀키트 정기 구독 보험서비스 ‘LIFEPLUS 프레시지 밀키트 구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일상해택형 구독보험으로 가입 고객은 프레시지 밀키트 상품을 최대 47% 할인가에 살 수 있다. 1년 만기가 되면 1개월 보험료

에 해당하는 현금과 이자를 만기보험금으로 환급받는다.

개미들이 미국주식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돌리면서 CJ푸드빌 뚜레쥬르는 해외 주식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뚜레쥬르는 이달 초 신한금융투자와 손잡고 매장에서 ‘순,사행’을 사면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상당 신한금융투자 해외 주식 상품권인 ‘스탁콘’ 스크래치 카드를 한정 증정하는 ‘주식빵’ 이벤트를 진행했다. 스타콘은 신한금융투자의해외주식상품권으로 출시 이후 2030 MZ세대로부터 호응을 얻는 상품으로 전해진다.

편의점 업계도 금융업계와 손잡고 컬래

버 상품을 낸 바 있다. GS리테일의 GS25는 한화생명과 협업해 올 여름 MZ 공략을 위한 맥주 구독 멤버십 보험을 출시했다. 맥주 20여 종을 월 1회 4건 무료로 얻을 수 있고 1년 보험 만기가 차면 현금과 이자를 합산해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마트24 역시 하나금융투자와 손잡고 ‘주식 도시락’을 내놓았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면 네이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의 주식 중 1주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머니러시’ 트렌드에 따라 업계는 당분간 이종 업종간 컬래버레이션이 늘 것이라고 전망한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돈이 흘러들어 오도록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에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품, 유통, 이커머스 등 소비자 접점이 많은 업종에서 금융, 보험과 협력이 늘고 있다”라면서 “머니 러시 트렌드에 따라 재테크를 테마로한 이색적인 협업이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인기상품 다 모았다”

홈플러스 2021 결산전

홈플러스는 8일까지 ‘2021 인기상품 결산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해 동안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상품들을 앞세워 최근 치솟은 국민들의 정부구니 물가 부담을 낮췄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매출 꺾인 면세점, 오미크론에 올상

10월 1.6조로 8.1% 하락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입국 금지 다시 늘어 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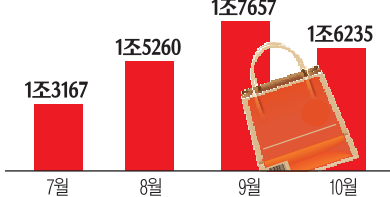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면세점 매출이 3개월 만에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면세점들의 표정은 굳어지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6235억원으로 전월의 1조7657억 원 대비 8.1% 감소했다. 올해 7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매출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외국인 매출은 1조5349억 원으로 전월(1조7025억 원) 대비 9.8% 감소했다. 방문객은 4만7921명에서 5만1503명으로 늘었지만, 객단가가 낮아지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 내국인 매출은 전월(632억 원)보다 40.2%나 증가한 886억 원을 달성했고, 방문객도 46만

국내 면세점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 출처: 한국면세점협회



3263명에서 62만5338명으로 늘었다.

면세업계는 당초 지난달 매출 감소 조짐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한 여행객 수는 올해 10월과 지난달 모두 2000명을 넘었다. 9월(904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개별 여행 허용과 무격리 조건으로 우리나라 여행객을 받고 있다. 태국은 지난달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63개국에 국경을 열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등 20여 개 나라가 우리나라 여행객에게 국경을 개방했다.

방한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었다. 지난달 22일 싱가포르 여행객 10여 명은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 방문했다. HDC신라면세점에서 싱가포르인 10여 명이 면세 쇼핑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2년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에 찾간 것이다.

하지만 면세업계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욱 커져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23명이다. 작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000명대를 넘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고자 일본,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기지개를 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이은 악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딪혔다”며 “전세계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2022년 정기 임원인사

‘꼬북칩’ 주역 이승준, 오리온 대표에

中·베트남 법인 대표 교체도

오리온그룹이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품 중심의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기 위해 한국, 중국, 베트남 법인의 대표이사를 R&D 전문가와 현지화 전략 실행에 능한 임원들로 신규 내정 및 선임했다.

더불어 중국 법인 현지화 체제를 한층 강화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귀홍보 영업본부장, 천리화 상해공장장, 김영실 포장공장장, 징베이 마케팅팀장 등 현지 직원을 본부장 및 팀장 직책으로 승진 선임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첫 현지인 공장장을 배출한 이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현지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와 비전을 지속 제시해 나가고 있다.

한국 법인은 이승준(사진) 사장을 대표이사 겸 글로벌연구소장으로 내정했다. 1989년 오리온에 입사한 이 대표

는 국내 최고의 식품개발 전문가로서 상품 개발팀장, 중국 법인 R&D부문장을 거쳐, 2020년부터 글로벌연구소장을 맡아왔다. ‘꼬북칩’, ‘닥터유 단백질바’ 등의 히트상품을 잇달아 탄생시켰고, 글로벌 R&D를 총괄하며 해외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신제품을 지속 선보였다.

중국 법인은 김재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1990년 오리온에 입사한 김 대표는 해외 법인에서 생산과 R&D를 두루 거치며 글로벌 사업 성장에 기여해 왔다. 중국 법인 랑팡공장장을 역임한 후, 베트남 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연구소장에 이어 2020년부터는 대표이사를 맡았다.

베트남 법인은 박세열 전무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박 대표는 2000년 입사 이후 한국 법인 경영지원부문을 거쳐 중국 법인 지원본부장을 역임하며 현지화 체제 강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 바이오 신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오리온홀딩스와 중국 ‘산둥 루강의약’이 세운 합자법인 ‘루강하 오리요우’의 백운운 대표이사를 상무로 승진시켰다.

김혜지 기자 heyji@



동원, 물류전문가 박성순 대표 선임

동원그룹이 전문성 강화, 젊은인재 등을 골자로한 2022년 대표이사급 인사를 1일 실시했다.

동원그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원로엑스에서 물류사업을 맡아온 물류전문가 박성순(사진)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김종성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해 물류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자문역할을 맡는다.

동원그룹은 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제조, 개발, 영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장성학 씨를 영업해 동원시스템즈 소재사업부문 경영을 총괄하

는 부사장에 임명했다. 최근 동원시스템즈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며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2차전지 사업부문은 조점근 사장이 계속 맡아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원시스템즈 패키징사업부문 대표이사인 서범원 전무와 동원푸드 축육부문 대표이사인 강동만 전무를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패키징 사업과 축육 사업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동원시스템즈의 민은홍 전무는 동원산업 경영총괄로 배치했다. P&G 출신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민 전무는 1970년생으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정비사업 급물살 타는데 ‘암초’로 떠오른 현금청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그 이면에 있는 ‘현금청산’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채운 후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이나 등기한 신축 빌라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이에 역을하게 현금청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여전히 도심 복합사업으로 인해 현금청산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한 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금청산 기준일은 6월 29일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지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상경했다는 청원인 A 씨는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 전 작은 반 지하 빌라를 구입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실거주 위해 산 빌라서 쫓겨날 판” ‘도심복합사업 피해’ 청원 잇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지역도 현금청산 대상 ‘강통빌라’ 주의보
“권리산정기준일 꼼꼼히 확인해야”

도심 복합사업을 위해 동의서를 견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빌라 구입 당시만 해도 매매가 불가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역지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졸지에 현금청산 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도심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에서도 불확실한 현금청산 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공반연 관계자는 “현재 후보 지역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다. 엄연히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금청산 문제는 또 다른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현

사업별 현금청산 기준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대상지	현금청산 권리산정기준일
역세권	
준공업지	2021년 6월 29일
빌라 등 저층주거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2021년 9월 23일

한 시민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심 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금청산 기준일은 9월 23일로, 후보지가 된 경우 입주권을 얻기 위해선 이날까지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가구별 등기까지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을 준비 중인 일부 지역들 중심으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위험한 매물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준비 중인 성북구 장위동 장위13구역에선 ‘2022년 4월 1일 입주협의 가능’이라고 적혀있는 매물이 거래되고 있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빌라다. 이 구역이 훗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현금청산 산정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과 차이가 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해당 매물의 3.3㎡당 단가는 488만원이지만, 공시지가로는 296만5000원 수준이었다. 차이가 무려 191만5000원 나는 셈이다.

장위동 N공인 관계자는 “손님이 부탁해서 매물을 올려놨을 뿐”이라며 “자세한 건 답변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축 빌라를 조건부 선분양한다는 매물로 등장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훗날 후보지로 지정되면 파기하는 특약을 놓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거래 한파에… 잘나가던 ‘무순위 줍줍’도 양극화

7만명 신청 vs 연속미달 사태
같은 서울지역서도 희비 갈려
“뚝뚝한 한 채 선호 지속될 듯”

전국 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별 핵심지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청약 불장(불같이 뜨거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단지는 수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도 마감에 실패하는 등 입지와 단지 규모별로 온도 차가 심하다. 최근 부동산 거래 한파 영향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자 무순위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짓는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사후 무순위 청약에는 약 6만9000명의 구름 인파가 몰렸다. 전용면적 84㎡형 4가구 모집에 3만873명이 접수해 경쟁률은

11월 주요 무순위 청약 결과

※ 출처: 청약홈

지역	단지명	전용면적	경쟁률	비고
서울	신내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84㎡	7718대 1	사후 무순위 청약
서울	에비뉴 청계1	20㎡	150대 1	9월 이후 미계약으로 매달 무순위 청약 진행
부산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77㎡	152대 1	-
부산	동래 다솜시티	66㎡	1.67대 1	전용 48㎡형 미달

7718대 1까지 치솟았다.

무순위 청약이란 순위 없이 청약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주택 공급제도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후 접수는 계약완료 후 잔여분비 발생하면 시행하는 추가 접수다. 규제지역에서 잔여 가구 20가구 이상 발생하면 당첨자를 추첨한다.

지방에서도 핵심지역에선 무순위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들어서는 ‘시청역 동원 시티비스타’ 무순위 청약에는 2가구 모집에 304명이 몰려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짓는

‘시흥장현 금강펜테리움’ 사후 무순위 청약도 경쟁률 3369대 1로 마감했다.

반면 무순위 청약 마감 실패 등 쓴맛을 본 곳도 속출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분양하는 ‘에비뉴 청계1’은 6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 단지는 9월 이후 매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미달로 4번째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난달 10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서 분양한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이스트’ 역시 전용 84㎡형 마감에 실패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짓는 ‘의정부역 리버카운티’도 지난달 29일까지 세 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처럼 지역과 단지 입지에 따라 무순

위 청약 결과가 엇갈린 것은 최근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거래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규제에 따른 거래 한파로 주택매수심리가 줄면서 무순위 청약도 지역별로 희비가 갈린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했다.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음을 뜻한다. 반면 100 이하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 정부가 5월부터 해당 지역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상반기처럼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확신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없다”며 “뚝뚝한 한 채 선호 확산과 소형 아파트 투자까지 하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무순위 청약 시장 양극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한화건설, 본계약 체결

사업비 1.8조…2023년 개장

한화건설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에 속도를 낸다.

한화건설은 30일 서울 중구 더프리카호텔에서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와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로 들어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1단계 건설공사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2019년 사전계약을 통해 1단계 공사를 시작했고, 이달 중순 인스파이어가 약 1조80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완료하면서 이번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인스파이어 복합엔터테인먼트리조트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서편 제3국제업무지구 약 430만㎡ 부지에 4단계에 걸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영종도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의 핵심사업으로 이번에 한화건설이 본계약을 체결한 1단계 공사의 사업비로만 약 1조8000억 원이 투입됐고 2023년 개장할 예정이다.

1단계 건설공사를 통해 약 1000실 이상 규모의 5성급 호텔 3개 동과 1만5000석(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 아레나(공연장), 컨벤션 시설, 실내 워터파크, 패밀리파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복합개발사업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최대 규모가 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1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경실련 “LH 사전청약 2.7조 거품”… 국토부 “분석 근거 부정확”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1만8602가구의 분양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분양원가를 3.3㎡당 1115만 원, 전용 84㎡형 기준 2억8000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LH가 발표한 분양가와 비교해 3.3㎡당 554만 원, 1가구당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1만8602가구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6930억 원

에 달한다.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3.3㎡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부천 원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466만 원인 반면, 성남 낙생지구는 3배 수치인 16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남 신촌지구 또한 3.3㎡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조성원가의 가장 큰 비중인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평당 100만~3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조성원가의 차이가 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청약 시 지금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적정 분양가는 그 산출방식·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며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 확정·공개되지 않은 만큼 경실련에서 제기한 택지조성원가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에서 분석 근거로 삼은 적정 건축비 단가(3.3㎡당 600만 원)도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등에서 공개한 공사비 원가(3.3㎡당 722만~759만 원)보다 과소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지구 간 택지조성원가 차이가 크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구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다”고 했다. 교통 여건 등이 미흡한 사업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설치비용이 타 지구보다 높아질 수 있고, 기존 토지의 이용 상황과 지장물 등 보상비나 조성공사비가 다른 경우를 고려할 때 조성원가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재영 기자 lly0403@

헌재 “금감원 직원 3년간 금융사 재취업 제한 합헌”

“퇴직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직원 80% 해당…2014년 첫 결정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금감원 노조는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취업제한기간 3년은 기존 금융 전문직과 노하우를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지나치게 긴 시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재직 중 취득한 기밀이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했던 부서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취업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이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도록 한 것 등이 지적되면서 확대됐다.

헌재는 “3년이라는 취업제한기간은 퇴직한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감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서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금감원은 국민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금융기관 등의 업무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취업제한이 이뤄질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종류, 수가 많음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금감원 노조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는 2급

(팀장급) 이상만 취업제한 적용 대상인데 금감원은 임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급부터 적용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를 주 업무로 하는 금감원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금감원 취업제한 대상 직급을 한국은행 등의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은재 재판관은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융감독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결하게 요청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취준생 자기소개영상 직접 만들어요” 1일 서울시청 시민청에 마련된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공간 ‘청년활력소’에서 직원들이 자기소개영상을 점검하고 있다. 청년활력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 면접이나 인공지능(AI) 면접을 확대하는 최근 취업 시장에서 면접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준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합뉴스

法 “‘판촉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정당”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청구
“납품업체 감소 수입도 판촉비용”

롯데쇼핑이 판촉행사비용을납품 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마트는 2017년 1월~2018년 3월 시행한 2403건의 할인행사 중 75건의 행사를 납품 업체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해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가 대규모유

통업법에서 금지하는 서명 약정 없이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해당 할인행사는 대형마트가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가격행사”라며 “납품단가를 인하여 업체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할 때마다 발주서를 통해 서면 약정했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납품업자가 서명 날인을 지연한 책

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매촉진비용은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비용’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할인행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 감소한 수입은 모두 판매촉진비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이 할인행사 전에 납품업자에게 발주서를 전송했다고 해도 발주서에는 납품 품목·수량·단가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다”고 봤다.

발주서를 전송했다는 것만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촉진 비용 부담요를 방지하고 사후 분쟁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구예지 기자 sunrise@

서울시의회, 오세훈표 예산안 제동

“속도조절 필요” 역점사업 ‘못매’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 전액 삭감
“시민단체 연합 신규사업 발목”

‘오세훈표 예산안’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며 서울시 예산안을 잇달아 삭감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형 헬스케어 구축을 위한 예산 60억8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만 19~64세까지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로 건강관리를 돕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반영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은 시의회에서 못매를 맞고 있다. 시의회는 예비심사에서 △감성도시 △지천 르네상스 △장기전세주택 △상생 주택 △뷰티도시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지천 르네상스 관련 수변 중심 도시공간 예산은 32억 원 전액,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은 40억 원이 삭감됐다.

반면 시의회는 서울시가 감액한 TBS 출연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을 되레 증액했다. 전날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가 252억 원(올해 375억 원)으

로 삭감한 TBS 출연금을 136억 원 증액해 389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가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은 42억 원 증액하는 안을 가결했다.

시민단체도 공세를 펴고 있다. 1090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 발족식을 열고 오 시장을 향해 “예산삭감, 인력감축 등을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부르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사실 왜곡, 비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도 노동·사회적 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 위축을 지적하며 시민단체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행태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합세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 재구조화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 재구조화를 이유로 신규 사업까지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삭감하는 게 시의회 일이라지만 이견 너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1·2차 모집이 조기 마감될 만큼 호응이 좋은 편”이라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많은 시민이 호응하고 있다. 최종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정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책 마련

조력 필요 미성년자 선제적 발굴
행안부·복지부와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부모의 원치 않는 빚을 대물림 받은 미성년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이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승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기간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민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 체계는 크게 △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자치단체 복지부서 △공단 내 전담부서로 구성된다. 민원·행정부서는 친권자의 사망신고 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확인하고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복지부서는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의 상속제도를 안내·상담한다.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대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와 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

이수진 기자 abc123@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계좌관리인 기소

심문 앞두고 잠적했다 검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 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10~2011년 권 회장이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던 때 주식시장에서 ‘선수’ 중 한 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지목된다.

이 씨는 10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한 달 여 만에 검거됐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 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로 뛰어들어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의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골프**®

최대 50yd 더 나가는 제3의 기술

지금까지는 세계 톱 프로만 누리던 2단계의 클럽 최적화

뱅골프의 진화된 3단계 최적화 기술로

아마추어 골퍼도 완벽하게 나에게 맞는 클럽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어느 골프업체도 하지 못한

3단계 최적화 기술로**골프 클럽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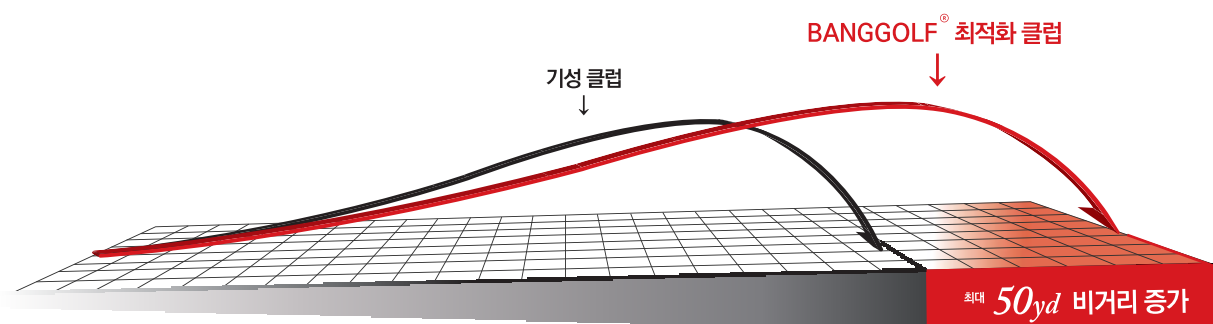
모든 클럽 업체가 여자용은 단 1개의 스펙, 남자용은 6-9개의 스펙뿐이라서

모두 똑같은 스펙의 클럽을 사용하는 잘못된 공급과 구매를 반복해 왔습니다

뱅골프는 10,368,000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귀하에게 딱 맞는 사양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상위 0.1% VVIP 고객을 위한 골프클럽 최적화 서비스



골프 클럽 3大 기술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 3단계 최적화 기술

“주택금융 미래 화두는 AI·블록체인 활용”

최준우 주금공 사장 ‘주택금융 콘퍼런스’서 강조

디지털 업무 넘어 빅데이터 기반 개인별 맞춤형 상품 설계
가계부채 리스크 ... 서민·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최준우(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혁신적인 주택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1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은 크게 변화했고 금융산업도 고객을 마주하는 접점부터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금융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공사는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연결되면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어려움과 주거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개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영끌 투자로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관리강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

시에 서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중단 없는 실수요대출 공급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우리 공사도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실수요 우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택금융 콘퍼런스는 ‘디지털 주택금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핀테크 업계 및 주택시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주택금융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우리금융,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70억 기탁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나눔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이웃사랑 성금 70억 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사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손태승(사진 오른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흥식(왼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위기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대비 40억 원 증액한 70억 원의 기부를 통해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1호 기부자’가 됐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1호 기부 소식이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금융그룹은 우리 사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손길을 더하는 든든한 나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아, 지속가능 경영 국무총리상



김상대(오른쪽) 기아 기업전략실장 전무가 박진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가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 지속 가능 경영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기아 측은 “지속해서 사회와 공동체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모범적인 경영 활동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단체에 수여된다. 2006년 ‘지속 가능 경영 대상’으로 시작해 2013년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이라는 이름을 거쳐 202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다.

유창욱 기자 woogi@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선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봉삼(사진) 사무처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국은 프랑스다. 제2차 업반의장국은 이탈리아이며 부의장국은

한국, 그리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포르투갈, 호주, 유럽연합(EU) 등이다.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신봉삼 사무처장은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

현재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쿠오모 성추문 개입’ CNN 앵커 동생 ‘무기한 정직’

형 고소 무마 시도 드러나

미국 CNN방송이 앤드루 쿠오모(왼쪽 사진) 전 뉴욕주지사의 성 추문에 개입한 혐의로 동생 크리스 쿠오모(오른쪽) 앵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CNN은 쿠오모 앵커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NN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을 당시 동생인 쿠오모 앵커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사건에 더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CNN은 “뉴욕 법무장관실은 쿠오모 앵커가 형의 변호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그는 당사의 규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CNN의 징계는 과거 쿠오모 전 주지사의 보좌관이자 피해자인 샬럿 베넷이 쿠오모 앵커의 해고를 공개 요구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베넷은 “쿠오모 앵커는 나와 다른 여성들의 고소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오모 앵커는 ‘쿠오모 프라임 타임’을 진행하는 CNN 간판 앵커



로, 쿠오모 형제는 주지사와 앵커 관계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얻기도 했다.

앞서 쿠오모 전 주지사는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스캔들에 연루됐고, 이후 뉴욕주 검찰이 조사를 통해 그가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밝히면서 8월 자진 사퇴했다. 그는 여전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ABL생명 ◇승진 △GA전략부장 목진호 △강남GA사업단장 손길용 △강북GA사업단장 여상훈 △영남지역단장 이경환 △충청지역단장 윤재익 △대경지역단장 한호연 △호남지역단장 이상훈 △제주지역단장 임익표 ◇전보 △FC기획부장 박경도 △동부지역단장 임명기

◆BK투자증권 ◇신규 선임 (본부장) △PE본부장 김덕균 (부장) △부동산금융3부장 최민석 △PE부장 이강연

◆한화투자증권 ◇본부장 선임 △트레이딩본부 지성규 ◇실장 선임 △리스크관리실 김관순 △신성장추진실 성기승 ◇사업부장 선임 △MS운용사업부 임원영 △글로벌ESG사업부 김국성 △부동산금융사업부 김철민

◆SK㈜ 머티리얼즈 (신규 임원 선임) ◇SK머티리얼즈 △김상균 박병배 김하균 ◇SK머티리얼즈 △김주현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안선열 ◇머티리얼즈리뉴텍 △진형철

◆GS그룹 ◇㈜GS △부사장 허준녕 △부사장 허서홍 △전무 최누리 △재무팀장(CFO) 겸 PM팀장 전무 이태형 ◇GS에너지 △상무 전태현 △상무 김갑연 ◇GS칼텍스 △사장 이두희 △부사장 이승훈 △부사장 김경수 △기술연구소장 권영운 △전무 김영주 △전무 오영철 △상무 김철민 △상무 김도균 △상무 김인권 △상무 국윤석 △상무 변종경 △상무 백형선 ◇GS파워 △전무 김윤희 ◇GS리테일 △전무 정재형 △전무 주운석

△상무 김종서 △상무 이창훈 △상무 이기철 △상무 이성화 △상무 강남일 △상무 장규훈 △상무 이한나 ◇파르나스호텔 △전무 여인창 ◇GS EPS △대표이사 정전수 △부사장 이강범 △상무 하동원 △상무 황대규 ◇GS글로벌 △대표이사 이영환 △상무 김정훈 ◇GS E&R △대표이사 김석환 ◇GS건설 △부사장 조성한 △전무 권혁태 △전무 송정훈 △상무 김완수 △상무 남경호 ◇자이S&D △부사장 엄관석 △상무 채한근

◆오리온 (전무 승진) ◇한국 법인 △영업본부장 박현식 ◇중국 법인 △지원본부장 강래현 △생산본부장 이상수 (상무 승진) ◇한국 법인 △생산본부장 김동주 △ENG팀장 김용태 △베트남 법인 △지원본부장 여성일 △마케팅팀장 정종연 ◇루강호리오리우 △대표이사 백옥운 ◇신규 선임) ◇한국 법인 △CSR팀장 홍순상

◆삼양그룹 △삼양홀딩스 ◇외부 영입 △바이오파프그룹장 이영준 △JC장 겸 Global성장PU장 윤석환 ◇승진 △바이오파프그룹의 약박이오연구소장 조혜련 △삼양사 ◇승진 △식품그룹장 최낙현 △AM BU장 서희원 △AM BU 영업PU장 전형래 △식품BU 인턴1공장장 정대균 △식자재유통BU 유통PU장 김중희 △삼양이노켄 ◇선임 △대표이사 강호성 △삼양사 대표이사 및 화학그룹장 겸임) ◇승진 △생산PU 생산기술총괄 장재수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승진 △대표이사 이혁 △삼양데이터시스템 ◇승진 △대표이사 김상욱

◆대우위니아그룹 ◇위니아전자 △부사장 장부백 △상무부 김창석 문지혜 ◇위니아전자매

뉴텍처링 △전무 김종면 ◇위니아딥채 △부사장 최찬수 △상무 김영팔 박은진 △상무부 김종표 이창익 이정기 ◇위니아에이드 △전무 김인석 △상무부 김희웅 이형재 ◇대우에이텍 △상무부 유상현 문경일 ◇대우플러스 △부사장 박상민 △상무부 박문수 최준용 ◇대우에이피 △상무부 김대식 ◇대우글로벌 △상무부 김삼규 ◇대우몽베르조합 △상무부장관희 ◇동강홀딩스 △전무 이재홍

◆나이스그룹 ◇KIS 정보통신 △대표이사 김승현 (내정) △전무 조용수 ◇NICE 디엔비 △대표이사 강용구 (내정) △상무부 안정기 ◇NICE 디엔알 △대표이사 박정우 (내정) △상무 김기창 ◇NICE 홀딩스 △부사장 오기섭 △상무부 이익중 ◇NICE 평가정보 △상무 박준수 △상무부 김동구 한재욱 ◇NICE 신용평가 △상무 안영복 최우석 △상무부 기태훈 ◇한국전자금용 △상무 하철수 △상무부 정태욱 ◇NICE 정보통신 △상무 김명열 김재영 △상무부 강재욱 ◇NICE 신용정보 △상무부 권희철 ◇NICE 피엔아이 △상무부 안정기 ◇NICE 페이먼트 △상무 조인혜 △상무부 김성희 ◇NICE 투자 파트너스 △상무 유승철 ◇OKPOS △상무부 이원희 최경호 ◇NICE 비즈니스 플랫폼 △상무 최정환 △상무부 조운원 ◇ITM 반도체 △상무부 백철승 임강운 임상섭 ◇서울전자통신 △상무부 원광모 ◇지니티스 △상무 강희민 ◇NICE 엘엠에스 △상무 문철주 △상무부 최승용

◆DB하이텍 △부사장 승진 △김상권 강정호

◇상무 신규 선임 △조철호 김재승 심천만

◆GC녹십자 ◇GC 〈승진〉 △경영관리실장 김연근 〈선임〉 △경영지원실장 김중수 ◇GC녹십자 〈승진〉 △오창공장장 김성화 △Special Biz 본부장 장도순 〈선임〉 △대의협력 Unit장 변준표 ◇GC Cell 〈승진〉 △전략기획실장 한준희 〈선임〉 △생산기획실장 박동일 △경영관리실장 이창휘 ◇GC녹십자MS 〈선임〉 △영업본부장 김원기 △글로벌사업본부장 임승연 ◇GC녹십자EM 〈선임〉 △GMP Solution 본부장 엄찬용 ◇GC녹십자헬스케어 〈선임〉 △플랫폼사업본부장 김태균 △경영전략본부장 문형철

◆휴비스 △미래전략주관 사장 김건호

◆한겨레 △사업국장 김성태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건설부동산부장(부국장) 조철현

◆글로벌이코노믹 ◇승진 △편집국 콘텐츠담당(국장대우) 노정용 △광고국장 겸 상무 남경진 △광고국 부국장 김유상 ◇신규 및 전보 △미주 총국장 겸 위성현 특파원 국기연 △산업부장(부국장) 이덕형 △온라인뉴스부장(국장) 이인수 △국제부장 겸 산업전문기자 김민구 △산업2부장(부국장) 최환금 △유통경제부장(부국장) 석남식 △산업부(부장) 채명석 양승원

◆TODAY스포츠 △회장 박정규 △발행 겸 편집인 이상규 △사장 최상기 △부사장 박종천 이규은 △미디어총괄전무 김삼용 △편집 주필 김광연 △편집국장 박중서 △광고국장 정양진 △문화·연예국장 이주옥 △기획실장 이상호 △경제부장 남재균 △스포츠팀장 이수복

부음

‘로봇찌빠’... ‘명랑만화 제왕’ 신문수 화백

명랑만화의 제왕으로 불렸던 신문수 화백이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39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으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창 시절에 캐리커처를 그린 경험을 살려 만화가가 됐다. 동아일보 투고를 계기로 1963년 한 해 동안 신문·잡지에 투고했으며 그해 만화 ‘카이젤상사’로 등단했다. 신 화백은 1964년 당대 최고 만화가였던 길창덕 선생의 추천을 받아 만화잡지 ‘로맨스’에 ‘너구리 형제’의 연재를 시작했다. 이후 ‘도깨비 감투’ ‘로봇 찌빠’ 등 히트작을 내며 꾸준히 명랑만화를 그렸다. 주로 어린이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명랑만화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특히 대표작 ‘로봇 찌빠’는 1979년 6월부터 14년간 ‘소년중앙’에 연재됐고, 단행본만 10권 이상이 나왔다. 이 작품은 길창덕 화백의 ‘꺼봉이’, 윤승운 화백의 ‘맹꽁이 서당’과 더불어 한국 명랑만화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로봇 찌빠’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모바일 게임으로도 나왔으며 후배들에 의해 웹툰으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4녀가 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0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일 오전 6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임종재 씨 별세, 임용순(핀포인트뉴스 대표이사)·홍순(기아자동차 책임매니저)·무순(주식회사 크리스탈 부장)·동순(이랜드그룹 팀장) 씨 부친상, 조광섭(논산우체국 팀장) 씨 장인상 = 30일, 수원 한독병원 장례식장 국화실, 발인 2일 오전 11시 30분, 031-212-4444

▲김덕경 씨 별세, 김지혁(울산신론 취재본부장) 씨 부친상 = 1일, 종은삼장병원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052-220-7799

▲전복희 씨 별세, 김태진(GS건설 CFO 부사장)·성진·순옥 씨 모친상 = 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2227-750



자본시장 속으로



이 대 우
로보피아투자자문 대표

2021년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스프레드가 극명하게 확대(코스닥시장 상대적 우위)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 종목의 1차와 2차 및 3차 벤더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대기업군에 종속되지 않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산업군으로 발 빠르게 성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에 근간을 둔 한반도의 빛나는 역사를 부인하는 한국인은 흔히 없지만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근거에 자신감이 흔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그러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 명확하다. 말이산 13호 고분에서 밝혀진 아라가야(阿羅伽耶) 지배층의 천문학에 대한 지식은 고구려벽화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사실이 순수천문도(淸祐天文圖)에 근간을 둔다고 중국은 주장하지만 선사시대의 예곡리 아촌 제8호 고인돌에서 증명하고 있는 삼성과 남두육성에서 명확하게 별자리 크기를 조절한 능력은 지구 상에 전무후무한 고고학적 증거자료임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반도는 최북위 43도(함경북도 온성군 북단)에서 최남위 33도(제주군 마라도 남단)에 걸쳐 있으며 지구 상에서 흔히 않게 뚜렷한 사계절을 보유한 국가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계절과 환경을 경험하면서 생겨난 면역체계의 우수성을 내재하게 됐으며 탁월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해방 이후 격동의 현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제철사업을 근간으로 한 철강과 조선 및 자동차 사업을 일구었으며, 국내 최초의 반도체 기업은 1965년 미국의 소기업인 ‘고미’로 간단한 트랜지스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1983년 2월 8일 삼성의 ‘도쿄선언’과 함께 현재까지 반도체 메모리 시장 불패의 신화를 이루어오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닌, 선조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문화의 흡수와 전파력 및 역동성을 꾸준히 발전시킨 당연한 결과의 산물이었으며 그로 인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산업군을 끌고로 발전시켜 온 강력하고 특징적인 산업구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코스피거래소(940종목)와 코스닥시장(1475종목)에 상장·등록된 산업과 종목들은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이며,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2021년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스프레드가 극명하게 확대

(코스닥시장 상대적 우위)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은 코스피 종목의 1차와 2차 및 3차 벤더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대기업군에 종속되지 않는 창의력이 돋보이는 산업군으로 발 빠르게 성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K-컬처(총 228종목)’라고 명명하고 11개의 세부산업군(로보피아투자자문 자체 분류기준)으로 분류했다.

게임과 기획사를 비롯한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그룹들이며 또한 글로벌 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차(99종목)와 수소차(40종목)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통일과 관련된 여타 산업군들(181종목)이 포진됐다.

1996년부터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기업군에 종속된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시점과 글로벌 4차산업이 코로나 이후 진화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산업군이 그 빛을 발하기 직전으로 2022년은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바뀌는 원년이 될 것은 자명하다. 코로나 이후의 산업재편은 기존의 산업성장과 완전히 다른 연구

개발(R&D)과 콘텐츠(Contents) 및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3가지 축에 근간을 두고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산업의 재편을 통해 성큼 다가온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현실적인 수익과 연결시킬 것인가?’인데, 이는 지난 칼럼 ‘투자는 속도의 게임이다’(2월 18일자)와 ‘가격(Price)이나? 가치(Value)냐?’(9월 8일자)에 해답의 일부가 있다.

2021년을 마감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기회가 될 원년인 2022년을 앞두고 진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보다 가격의 흐름에 충실해야만 한다. 이유는 경기와 가격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경기에 반영되지 않은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다. 어떠한 시장상황에서도 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로스컷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에 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4월 15일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하라’). 마지막은 위 두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다.

CEO 칼럼

김형산
더스wing 대표



당신이 무엇을 운전하며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 당신은 최저임금을 벌며 평균대비 10배 이상 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 당신이 택시기사(승용차)이든, 음식 배달원(오토바이)이든, 택배기사(1톤 트럭)이든, 만약 자차가 아닌 법인차량을 빌려 타고 있다면 놀랍게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모든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최고의 사고율로 인도한다.

법인택시 기사는 차량 ‘등’을 받고 일 14만 원의 ‘사납금’을 내며 하루 10시간을 운전하며 일반 차량 대비 10배 높은 교통사고에 노출된다. 배달대행사 소속 음식배달기사는 약 5만 원의 ‘바이크 렌탈비’(기름값과 유지비 별도)를 내며 매일 10시간씩 주6일 근무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동안, 매일 한 명씩 사고로 죽는다. 운수회사 소속 택배기사는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회사에 4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운이 좋아 마음씨 좋은 사장을 만나면 최저시급을 받

고 운이 나쁠 경우 주·야간조에 동시에 편성돼 혹사당하며 최저임금도 못 받다가 퇴사를 하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어떤 운수업이든 자본이 필요한데, 운수업 종사자들은 애초에 운송수단을 살 목돈이나 할부로 살 신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기사를 위에는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법인들이 있다. 몇 억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운송수단을 유통할 수 있는 신용이 있는 이들은 라이더들을 모집·관리하며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영위 중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보니 각종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이 운송수단 소유주들을 엮어 먹이사슬 최상위로 올라가고자 했으나, 플랫폼들은 사실 라이더와 운송수단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철저히 율의 관계로 영원히 적자를 낼 듯하다.

자차를 보유한 일명 ‘지입기사’들의 사정은 다르다. 사납금이나 비싼 렌탈비를 내지 않아 실질 소득이 배 이상 높은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을 제공한 법인의 반강제

적인 요구가 없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속도로 일할 수 있다. 또한, 어느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콜을 받을지도 자유롭다.

필자는 더스wing을 창업하기 전에는 이러한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 우리 키보드를 종전·수거·배치해 주는 소중한 운영팀원들의 과거 이력을 들으면 음식배달을 한 적도 있고 운수회사에 법인기사로 일한 적도 있었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많았다. 지금도 그렇듯 그때도 정말 성실했을 이들에겐 단순히 자차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았다. 자유의지를 가진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인 거래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경영자이기 전에 사회과학도로서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를 창업가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대부분 사람의 이동을 타깃으로 하고 스윙 역시 개인의 이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말 운송수단 공유서비스가 필요한 분야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이동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라이더들이 목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부를 쓸 수 없는 것은 신용이 없기 때문이고, 할부제공자들이 신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할부금을 제때 내지 않고 운송수단을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사람의 힘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액 자본가들이 있는데, 만약 라이더들이 필요할 때 신용 없이도 소액으로 운송수단을 빌릴 수 있다면 개념적으로 모두가 ‘지입기사’가 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들은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는지 행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 언론 및 인권운동가들은 시민운동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변호한다. 스타트업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오늘은 라이더지만 내일은 각자의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라이더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조르주 피에르 쇠라 명언

“미술은 조화이다. 조화는 톤이 비슷하거나 요소들에서 그리고 색채와 선에서 유추한다. 명랑함과 고요함, 슬픔의 혼합에서 이러한 것들이 빛의 영향과 지배 아래 있음을 생각하면 말이다.”

프랑스의 화가로 신인상주의의 창시자다. 인상주의에 엄밀한 과학성, 합리성을 더했다는 평을 듣는다. ‘포즈 잡는 여자들’, ‘샤유춤’ 등의 대작을 그렸다. 앙데팡당전에 ‘서커스’를 미완인 채 출품한 후 급사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59~1891.

☆ 고사성어 / 불원천리(不遠千里)

‘천 리를 멀다 하지 않는다’는 말.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옴을 뜻한다.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이 원전. 맹자가 양혜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한 말에서 유래했다. “선생님께서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不遠千里而來]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방법이 있으신 것입니까?” 맹자는 “왕은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응대했다.

기자수첩

김지영 / 정치경제부



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방역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지난주 두 차례나 신규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특별방역강화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를 제외했다.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이번주에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분과별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란 명분이 와닿지 않는다.

눈치만 보는 정부 방역대책

1일 0시 기준으로 성인(18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율은 91.5%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카페까지 확대했을 때 불편을 겪는 성인이 전체의 8.5%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들 때문에 연말 모임·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할 것이란 건 기우다. 더욱이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래방·PC방 등 일부 시설에 한해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로 마친가자다. 16~17세는 접종 완료

율이 50%를 넘는다.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추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동이 제약되는 연령대는 12~15세인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2~15세가 노래방·PC방 매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지의 문이다. 소아·청소년의 놀거리가 제약되겠지만, 그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체로 감염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고, 적용대상은 성인이다. 이들 시설·대상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내세워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제 와서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을 이유로 적용시설·대상에 식당·카페, 소아·청소년을 추가하지 못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정부가 미접대는 사이 신규 확진자는 5000명을, 위중·중증환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병상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사적모임 제한 강화를 수반하는 비상계획까지 필요하게 됐다. 위험신호 방치 후 확진자 급증, 이후 뒤늦은 방역조치 강화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지난해 3월부터 반복됐던 문제다. 재택치료, 예방접종 호소는 방역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해야 한다.

jye@

누가 당선돼도 ‘금융감독위’ 인가

금융당국이 어수선하다.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산업 육성에 정책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만큼 감독 기능에서의 허점이 항상 문제가 됐다. 매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금융사고가 그 방증이다. 이 같은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지휘에서 벗어나려고 여의도를 뛰었다.

‘징계 권한’을 놓고도 매년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의 의결을,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촌극을 낳았다. ‘책임’에 있어서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기능과 권한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반면 금융위는 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시장의 관리감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사태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해 두 기관이 어떤 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사리지고 소비자 피해와 규제 강화 그리고 금융회사 징계만이 남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각기 다른 금융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기형적인 금융당국이라는 비판은 확실하다. 그런데도 금융당국 수장들은 개편에 반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체계는 ‘정답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치권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에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구체 사안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핵심은 ‘금융위 해체’라는 점은 공통 사항이다.

여권에서는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던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두 개로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가 담당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야권에서는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내놴다. 금감위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이처럼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의 공통점이 ‘금융위 해체’란 점이 눈에 띈다. 달리 말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위 존속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사안이다. 내년 3월 대선 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대전제를 인지하기 바란다. 소비자 보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출발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acw@

사설

코로나 확진 5000명대, 의료체계 붕괴 위기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 작년 1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 수치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슈퍼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123명 늘어 누적 45만235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032명)보다 2091명 증가했고, 지난달 24일 4000명을 넘긴 이후 1주일 만에 5000명대로 급증한 것이다. 지역발생이 5075명, 해외유입 48명인데 서울(2212명), 경기(1576명), 인천(322명) 등 지역발생의 수도권 비중이 81%에 이르렀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치솟았고, 사망자가 34명 나와 누적 3658명으로 늘었다.

감염력과 백신저항력이 델타변이보다 훨씬 강한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유입돼 이미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의 40대 부부가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은 출국 전 모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오미크론은 세계 전역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이들을 치료할 의료시스템이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7%, 경기 87.6%, 인천

88.6%이고, 수도권 환자가 이송되는 충청권도 95.0%의 병상이 들어찼다.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도 입원을 할 수 없는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공여지책으로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택치료를 하다 증상이 악화할 경우 대부분 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고, 아파트 등 밀집된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 여건에서 오히려 집단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연말까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선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완료율이 80%를 넘었지만 무의미해지고 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하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지난 달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중 수도권 사적모임과 식당·카페 등의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 예전처럼 강력한 거리두기로 되돌리기 어려운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 일상회복을 일단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늑장대처로 의료체계까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

노트북을 열며

구성현
유통바이오부 차장



ESG 경영은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최근 전 세계, 전 산업군에서 최대의 화두는 단연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경영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통가도 예외가 아니다. 롯데그룹이 최근 계열사를 중심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신세계 역시 그룹 내 전 상장사에 ESG 위원회 설치를 완료했다. 친환경은 마치 코로나19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듯 업체들마다 탄소중립과 일회용품 퇴출을 내세우기 바쁘다.

ESG는 실적인 추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성장을 고민하고 기여하는 경영 기법이다. 전사적인 내부 혁신, 주주 요구 반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핵심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너도나도 ESG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흥내만 내는 이른바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선 현장과 소비자들 사

이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ESG를 유행을 탄 결합식 식 경영 전략으로 보는 경우도 많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 역시 ESG 경영을 단순히 ‘친환경 마케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앞서 ESG 전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공유가치창출)가 유행어처럼 사용됐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오는 것은 ESG가 정해진 규격이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5월 내놓은 ‘ESG 투자 위험의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ESG 워싱(세탁)’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기업이 표방하는 ESG 경영이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명칭 부여와 홍보, 마케팅 등에만 치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무늬만 ESG에 그치지 않도록 정의, 분류, 평가,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ESG 평가를 SCI, DJSI, 서스테이널리티스 등이, 국내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하고 있다.

문제는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

라는 점이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요소도 다르고, 그에 따른 가중치도 다르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전 세계 70개국에 약 360개 정도가 있다.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의 평가가 아예 상반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생겨날 우려도 크다. ESG 경영을 하지 않는데, 마치 지속가능한 기업인 것처럼 꾸며낸 것이다. 실제로 사회공헌을 많이해 사회적 평가가 좋은 기업이 있는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ESG 평가 기준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산업별, 기업별 특성을 이유로 평가 기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기준을 정립하고 ESG 등급을 감독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IFRS가 ISSB 설립을 공식화해 ESG 공시기준 정립을 예고했고, IOSCO는 ESG 평가기관 및 데이터 제공 기관들,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의 명확한 기준마저 만들지 못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carlove@

마음상담소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에 그들마다 행복한 이유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실현될까? 미국 긍정심리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셀리그만은 인간의 행복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행복의 다섯 가지 유형론을 발표했다.

우선, 행복은 즐거움이다.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시간이 많다면 분명 행복한 것이다. 부모가 유쾌하다면 그 자녀도 유쾌할 가능성이 크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향과 기술은 유전성이 있다. 그러나 순간의 즐거움에 열중하면 금세 관태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중독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행복은 몰입이다. 일, 사랑, 놀이, 예술과 같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몰입이다. 그리하여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 하루 일과 중 몰두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관계다. 인생의 많은 일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매우 행복한 사람들, 반면에 매우 불행

행복의 실현

한 사람들. 그 둘의 차이는 관계성 하나뿐이라고 한다. 매우 행복한 사람들은 결국 매우 사교적인 사람들임이 밝혀졌다.

행복은 성취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업적을 남기는 것은 승자의 삶이다. 그러나 관계와 의미가 빠져 있는 성취는 공허한 성취로 남겨질 우려가 있다.

끝으로 행복은 의미다. 자신이 가진 강점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활용하는 것, 그것은 가장 숭엄한 행복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찾아낸 인생의 의미를 잘 보듬어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다섯 가지 행복 중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들 중에서 2개 혹은 3개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바로 지금부터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행복은 이유 없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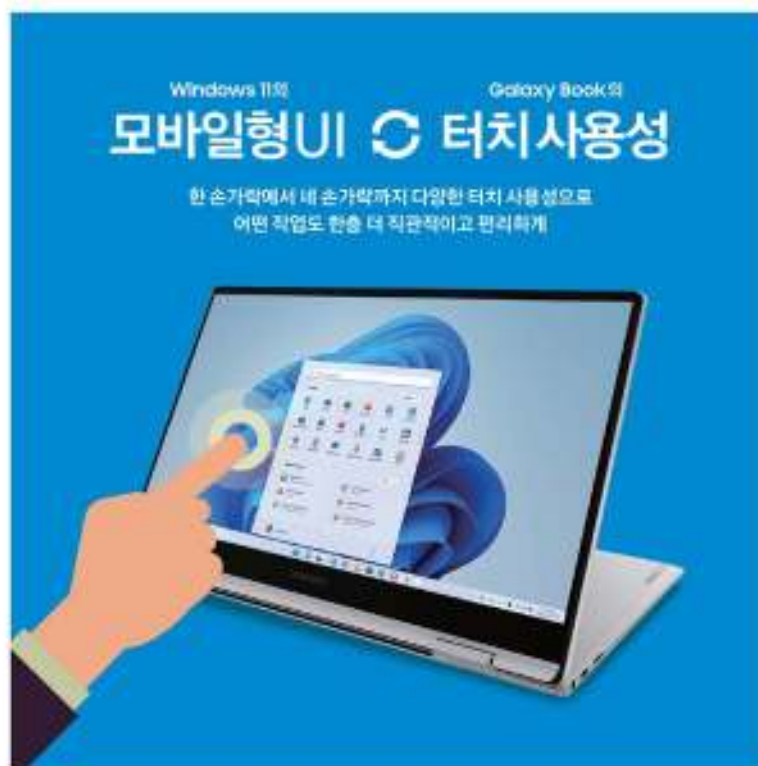
황정우 지역사회전환시설 우리마을 시설장·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SAMSUNG

Windows 11 파트너

One Team, One Galaxy



새로워진 Windows 11에 최적화된 갤럭시 북으로
나의 갤럭시 라이프를 더 완벽하게

Windows 11 파트너
Galaxy Book

지금 갤럭시 아카데미의 풍성한 혜택과 함께 갤럭시 북을 만나보세요
갤럭시 아카데미 시즌 1 | 2021년 11월 18일 - 12월 31일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삼성 노트 동기화 시 네트워크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하며, 모든 기기는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삼성 노트 동기화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 Microsoft Teams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Microsoft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또는 Wi-Fi 연결이 필요합니다. * 터치 스크린은 Galaxy Book Pro 360 모델에 한해 지원됩니다.